



북극강산

10

주제 109(2020)
루게 제 374호 월간



표지: 당창건사적관

당창건사적관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남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5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이 집에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사적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당창건업적을 보여주는 사적물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조선중앙통신



뒤표지: 리명수의 가을

편집: 박철만

차례

인민을 위한 75년	2
일 화	
인민을 위한 양을 건설하시던 나날에	4
덕과 정으로 몽친 배 조국	6
당과 국가의 보살핌속에	8
심장의 고백	12
좌담회	
강기밭에 인민의 모습이 있자	14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로선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혈전의 준비	18
기술개건을 전망성있게	20
대중이 기술개조의 주인이 되어	22
력사인물	
최초의 양약대지휘자 백우용	23
대 담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24
늘어나는 끝벌떼	25
《코드쉐프》무슴자들	26
인기있는 만화영화창작가들	28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30
화초연구사들	32
《우리의 일》	34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36

잊지 못할 우정 37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여 38

고향소식

동포가 추억하는 고향 40
 할머니들의 기쁨 42
 높은 의술로 전해가는 애국의 마음 44

조국의 품에 안겨

찬가는 계속된다 46
 제도가 낳은 비극 47

민족의 향기

단군제례 48

유적기행

왕건왕릉에서 50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1) 51

지명유래

평양의 일부 지명들 (1) 52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53

사 화

권률장군과 환 선비 54

야 화

생일상앞에서 읊은 시 55
 명승-좌양산 56



6



10



34



46



48

상 식

대뇌기능을 높이는게 좋은 손가락운동 26
 선조들이 리용해온 화장용식물들 42

유모아

간단한 대답 43
 조선속담 (확신성) 45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인민을 위한 75년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의 력사가 75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할수 있다.

세기를 이어가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제 압살공세가 가증되는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의 흐름속에서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였으며 향도자로서의 당의 령도는 더욱 로숙하고 세련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며 당의 공고성과 불패성은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은 창건이래 오늘까지 인민을 위한 복무의 한길을 걸어왔다.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고 하나의 정책을 작성해도 언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해방직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무상치료제, 무료교육,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등 년대와 시대를 이어오며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최악의 시련을 겪던 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은 나라와 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선군정치로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 그 어떤 침략세력도 함부로 넘볼수 없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인민의 재부를 늘이였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발전하여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당활동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조국에서는 해마다 인민을 위한 방대한 건설이 진행되고있다.

사회주의보건제도,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제일 좋은 자리들에 인민들을 위한 문화휴식터들이 일떠섰다.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병원과 살림집들이 건설되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 연풍과학자휴양소, 마식령스키장이 일떠선데 이어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어랑천발전소, 순천린비료공장 등 인민의 복리를 위한 문화시설들과 산업시설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결코 자금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조국을 압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책

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자주와 자력갱생의 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짧은 기간에 나라의 전략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모든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이 낳은 위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하기에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믿고 따르며 당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고 있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만 향도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조선로동당을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건설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민위천을 당의 로선과 정책의 기초로 삼으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로 지향시키심으로써 우리 당은 명실공히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지나온 75년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당이 위대해지고 위대한 당의 령도가 위대한 인민을 낳는다는 력사의 진리를 증명한 위대한 력사이다.

김혁주

인민을 위한 강을 건설하시던 날에

당의 명칭에도

주체35(1946)년 7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제8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공산당과 신민당과의 합동문제가 토의되던 때의 일이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창립될 당이 근로대중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부르는가고, 로동당이란 로동자들의 당이란 뜻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고 참가자들의 시선은 일시에 위대한 수령님께로 집중되었다.

그이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며 로동이라고 하면 흔히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로동자는 물론 농민도 로동을 하며 사무원도 정신로동을 하고있다고, 우리가 두 당(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당하여 창립할 당은 다같이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인것만큼 그 명칭을 로동당이라고 하자는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제서야 당의 명칭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게 된 회의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적인 찬성을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로동당의 명칭에는 이렇듯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다.

당의 계산방법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식료공업발전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놓고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협의회를 진행하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에게 인민들과 특히 어린이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하기 위하여 어느 한 식료공장에 새로운 공정을 빠른 시일 안에 꾸려주었으면 하는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떤가고 물으시었다.

한동안 일군들은 무거운 침묵속에 잠겨 아무

대답도 드릴수가 없었다.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서 방대한 건설이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어디서나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이 필요하였던것이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긴장한 자금사정을 보고드리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물론 타산을 해 봐야 한다, 그러나 타산할 때가 있지 아무때나 수관알부터 먼저 튀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일군들을 깨우쳐주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것이 자신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위대한 장군님을 피눈물속에 영결한 주체100(2011)년이 다 저물어가던 마지막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아픔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조직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좀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다 교양하고 포섭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야 한다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조직들이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교양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이리저리한 리유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쓰고 풀어주며 교양하여야 한다고,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계급적토대와 가정주위환경, 사회정치생활경위에 관계없이 다 따듯이 안아 보살펴주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펴시었다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이날에 하신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의 발현이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마크를 형상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3인군상

덕과 정으로 몽친 내 조국

오늘 조국은 그 어떤 역풍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하다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덕과 정으로 몽친 일심단결에 있다.

예로부터 사랑과 정은 검을 이긴다고 했다.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법도 중요하지만 덕과 정은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사랑과 존경, 보답과 의리의 관계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의 화목을 도모하며 공고한 사회적단합을 이루게 한다.

조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덕과 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살고있다. 남을 위해주는 미덕은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으로, 고결한 의리로 간주되고있다.

30여년세월 특류영예군인의 안해로서 가정의 크고작은 일을 돌보면서도 조국에 보탬주는 좋은 일을 수없이 찾아한 어느 한 탄광의 녀성로력영웅,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키우는 강선당의 《처녀어머니》며 하반신이 마비된 학생을 위해 헌신한 한 처녀교원의 소행, 지어 남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미덕의 주인공들은 수없이 많다.

그들은 그 어떤 대가나 보수를 바람이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 뒤떨어진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도 메마른 땅에 떨어지면 고운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사람들도 어떤 사회제도를 만나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인간으로 될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령도자로 모시어 조국은 덕과정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인

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려는것이 그의 뜻이고 의지이다.

실지 그의 사색과 활동은 인민을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올해초 악성전염병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닥쳐왔을 때 그이께서는 즉시에 비상방역 조치를 취해주시어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시였다.

3월에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으며 지난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 사랑과 정에 이끌려 인민들은 령도자의 두



당과 국가의 보살핌 속에

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가고있다.

오늘 삼지연시의 전변과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변혁들의 밑바탕에는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이 놓여있다. 인민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일떠서고 그이께 기쁨드릴 한마음으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것은 그 어떤 강요나 의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형성되고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광란하는 날바다에서 38시간동안이나 표류하면서도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위한 한 선원의 소행은 수령의 믿음과 사랑을 한생의 재부로 간직할 량심과 의리의 인간들이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단결의 구호를 웨쳤으나 결코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그것은 덕과 정이 흘러넘치는 사회제도를 건설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었기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군 한다, 우리의 단결이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순수 사상의지의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것처럼 강할수 없었을것이다, 오로지 충성과 의리로 결합된 사상의지적 단합이 있어 우리는 강적을 타승할수 있었다고 회고하시였다.

뿌리깊은 나무는 폭풍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이 덕과 정으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국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자기가 정한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난 안경을 끼지 않고 바늘귀를 꿰고있으며 신문도 읽고있습니다. 국가적혜택이 나에게 백살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양시 서성구역 장경1동에 살고있는 김순탄할머니가 사람들앞에서 한 말이다.

그의 말은 조국의 인민적시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돌이켜보게 한다.

치료비라는 말을 모르는 인민

조국인민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의례히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봉사를 받는다.

조국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먼저 찾아가고있으며 예방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누구에게나 담당의사가 있으며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있다.

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예방주사를 맞고있으며 그 어떤 질병도 미리막을수 있도록 검병, 검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주체105(2016)년 촬영



진행되고있다.

무상치료제의 실시로 사람들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찰과 실험검사, 치료와 수술을 받고 병원시설을 리용하며 치료비라는 말도 모르고있다.

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비행기를 띄우고 최신식의료설비들과 유능한 교수, 박사들을 다 동원하여 소생시키는데 너무도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조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평화시기도 아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1(1952)년 11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이듬해부터 실시되였다.

수업료라는 말을 모르는 인민

조국인민들은 수업료라는 말자체를 모르고있다.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누구나 마음껏 배우며 치료받는다.

주체106(2017)년 촬영



주체48(1959)년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조국은 변함없이 무료로 학생들을 공부시키고있다.

학생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거쳐 대학, 박사원에 이르는 전기간 그리고 사회교양기관들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외진 섬마을이라 할지라도 한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곳에 학교가 서고 교원이 찾아가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학생들을 위한 소년궁전과 회관이 있어 누구나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울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조국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시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허리띠를 졸라매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조국은 후대들을 위하여 많은것을 설계하고 구상하였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 구호에 조국의 후대

관이 집약되어있다.

집값을 모르는 인민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를 찾고 이곳에서 살고있는 주인공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

그들이 살림집주인들에게 먼저 묻는 말은 집값이다.

그럴 때면 그들은 한결같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조국에서는 국가부담으로 살림집들을 도시와 농촌들에 건설하여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배정하고있다.

이밖에도 조국에서 실시하는 인민적시책들 가운데는 노동과 휴식의 권리보장, 국가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 등이 있다.

재미동포 김지영은 조국을 방문하고 쓴 수기 《한없이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매혹되어》에서 이렇게 토론했다.

《자본주의를 <인류사회발전의 종착점>인양 떠드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앞으로 몇년이지나게 되면 북에서처럼 인민들에게 집을 무상으로 줄수 있고 고도로 예술화된 멋쟁이아파트까지 지어줄수 있는가.

10년? 100년? 1 000년?

누구도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묻고싶은 말은 그외에도 많다. 국민소득이 얼마쯤 더 늘어야 인민들이 세금에서 해방되게 되는가, 경제가 어느만큼 더 발전해야 평범한 인민의 한 생명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한명의 학생을 위해 섬마을에 분교가 세워지고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통학렬차가 뛰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가. ...》

본사기자 엄향심

새 합숙에 들어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여성노동자들 주체106(2017)년 촬영



미래과학자거리 살림집에 입사한 기쁨을 안고 주체104(2015)년 촬영



새집들이를 하는 함북도 북부귀해지역 인민들 주체105(2016)년 촬영

새 문화주택을 받은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근로자들 주체104(2015)년 촬영



려명거리 새 집에 입사하는 교육자 가정들 주체106(2017)년 촬영



심장의 고백

잠결에도 먼저 찾네
 먼길 가도 먼저 찾네
 나를 두고 제일 먼저
 마음쓰는 그대여서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를 것처럼
 것처럼 따듯이 보살피랴
 온 세상 다 준대도
 내 못 바꾸리
 그 품에 사는 이 행복
 ...

조국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
 워지고있는 노래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의 한구절이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사람들의 얼
 굴마다에는 당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실린다.

아마도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
 를 것처럼 것처럼 따듯이 보살
 피랴》라는 가사의 구절때문이
 아닌지.

노래는 사상감정을 나타낸다고
 조국인민들은 누구나 조선로
 동당을 어머니라고 친근하게 부
 르고있다.

어머니라는 이 부름에는 조
 선로동당이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
 로부터 걸어온 장장 75년의 력
 사가 함축되어있다.

당은 해방된 조국에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로부터 시작하
 여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
 설,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나의 결
 정을 채택하거나 사업을 설계할

때에도 반드시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고 그들의 의사를
 로선과 정책에 담았다. 창건때
 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당회의들에서 인민생활과 련관
 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당은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
 는 중대한 정치적결단도 서슴
 없이 내리고 인민의 행복을 쫓
 피우기 위함이라면 억만금도 아
 킴없이 기울이었다.

큰물피해를 비롯하여 자연재
 해를 입어 한지에 나앉은 인민
 들에게 원래 쓰고살던 집보다
 더 좋은 살림집들을 건설해주
 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준 조선
 로동당이였다.

이 나라의 천만자식을 한품
 에 안아 그들의 운명도 미래
 도 다 말아안아주는 당은 인민
 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
 며 언제나 인민과 생사를 같이
 하였다.

누구나 조선로동당이라고 그
 이름 불러보면 눈굽은 찢릿이
 젖어들고 솟구치는 그리움에 마
 음은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는
 그 품은 어머니의 품이였다.

인민은 지심깊이에서 뿔어져
 나오는 용암인양 뜨거움에 목
 매여 당을 어머니라고 노래하
 고있다.

주체53(1964)년 처음으로
 당을 어머니라고 노래한 가요
 《어머니당이여》가 창작된 후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을 아
 기의 요람을 지켜 잠 못 드는
 어머니의 눈빛으로 형상한 가
 요 《당중앙의 불빛》, 우러러

볼수록 어머니의 모습으로 안겨
 오는 따사로운 당의 품을 노래
 한 가요 《당은 어머니모습》,
 우리 삶의 시작도 꽃피난 곳도
 당의 그 품에 있음을 폐부로 절
 감하게 하는 가요 《내 삶이 꽃
 피난 곳》, 인민의 절대적인 지
 지를 받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구가한 가요 《조선로동당 만
 세》 등 많은 노래들이 년대와
 시대를 이어 창작되었다.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에도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 《어머니의
 목소리》와 같은 찬가들을 심
 장으로 부르며 조국인민은 당
 을 따라 모진 시련과 난관을 웃
 으며 헤쳐왔다.

그후에도 병든 자식, 상처입
 은 자식을 다 말아안아주는 조
 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들의 격찬
 은 계속되어 가요 《내 심장의
 목소리》, 《당이여 영원히 그
 대와 함께》, 《어머니당에 드
 리는 노래》, 《당이여 나의 어
 머니시여》를 비롯한 명곡들이
 수많은 태어났다.

정녕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로
 부른 송가들이야말로 체험과 진
 실, 믿음으로 터치는 인민의 심
 장의 고백인것이다.

하기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해외동포는 조선로동당을 어머
 니라고 형상한 고국의 노래들
 을 불러보면 그 위대함에 머리
 가 절로 숙어진다고 하면서 그
 품속에서 사는 조국인민은 정말
 행복하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임향심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절절하고 뜨겁게 (♩ = 70)

작사 리지성
 작곡 장충심

1. 잠 - 결 에 도 먼 지 찾 네 먼 길 가 도 먼 지 찾
 내 나 를 두 고 제 일 먼저 마음 쓰 는 그 대 여
 서 당 이 여 - 어 머 니 시 여 그 - 품 이 아 니 라
 면 그 - 누 가 나 를 그 처 럼 그 처
 럼 따 뜻 이 보 살 피 라 온 세 상 다 준 대 도
 내 못 바 꾸 리 그 품 에 사 는 이 행 복

2. 기쁠 때도 생각했네 힘들 때도 생각했네
 내가 항상 잘되기를 바라는 그대여서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를 이처럼 이처럼 소중한 지켜주라
 천지가 변한대도 변심 모르리 그 품만 믿는 이 마음

3. 그 손길을 놓는다면 생의 먼길 갈수 없고
 그대 품을 떠난다면 삶의 전부 잃게 되리
 당이여 어머니시여 그 품이 아니라면
 그 누가 나를 이처럼 이처럼 품들여 빛내주라
 하늘땅 끝이라도 내 따르리라 그 품만 오직 따르리

당기밭에 인민의 모습이 있다

김광식: 2.8비날론련합기업소 부기사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수식: 함경남도 영광군 상중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정웅: 리과대학 함흥분교 교원, 교수 박사
김충성: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함경남도위원회 부위원장
연 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당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경남도에서 사업하는 여러분과 함께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을 돌이켜보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정웅: 다 알다싶이 세계에는 수많은 유명무명의 당들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매 당들은 자기 당의 성격과 리념을 당기밭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로동당기에도 마치고 낮과 붓이 아로 새겨져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위한 당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1945. 8. 15.)된 조국땅에서 당을 창건하시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실 때 일부 편협한 사람들은 지식인은 사회의 간층이기때문에 로동계급의 당의 구성성분으로 될수 없다는 선행리론의 《절대성》을

운운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물론 인테리가 독자적인 계급이 아니라 사회의 계층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테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총이 없이는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인테리가 없으면 나라를 건설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당마크에 붓을 그려놓도록 하심으로써 지식인도 당의 구성성분으로 규정해주셨습니다.

김광식: 우리 당은 75년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사를 펴나갔습니다.

당에 있어서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는 곧 당의 로선과 정책작성의 출발점으로,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는 당의 령도방식은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매 력사적단계마다 뚜렷이 과시되지 않았습니까.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웠습니다.

한수식: 우리 인민은 당기에 새겨진 마치고 낮과 붓에서 어머니당의 정치를 뜨겁게 절감하고있습니다.

당은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과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우월한 시책들을 내놓도록 하였으며 인민이라는 도양에 뿌리박고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여왔습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로동자들의 기쁨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그들이 먹는 국맛도 보아주시였으며 대동강으로 흘러든 서해의 짠물피해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셨습니다.

김충성: 언제인가 미국 CNN텔레비존방송회사가단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드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주석님에 대해 알고싶어한다고, 인격형성과 정책작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가고...

그러자 그이께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없는 평범한 인간이다, 특별한 취미란 따로 없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나의 취미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책이 말없는 스승이라면 나의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김광식



김정웅



김충성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당을 령도하여오신 전기간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우시고 당과 국가활동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한생을 하나로 쥐여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찾으시어서는 《인민들이 좋아합니까?》라고 묻곤 하시였습니다.

김정웅: 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삼복철강행군이 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곳이 바로 여기 함남땅입니다.

그이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함경남도의 수많은 공장 과 기업소들을 찾으시며 비날론대경사, 흥남의 무연탄가스화공사의 완공, 첫 지열설비의 제작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 하시였습니다.

김광식: 비날론공업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9(2010)년 2월 어느날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어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을 만족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시기 비날론연구를 중단없이 하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고 돌에서 섬유가 태어났을 때에는 비날론이라고 이름지어

주시였으며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는 비날론공장의 리전도 잡아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령도에 의해 주체50(1961)년 5월에 당시의 2.8비날론공장이 준공되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주체99(2010)년 3월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던 어느날 함흥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시며 위훈의 창조자들과 비날론섬유가 다시 쏟아져나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었던것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면 비날론공장현대화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되고 비날론섬유와 비날론솜, 농약과 물감을 비롯한 갖가지 화학제품들이 생산되게 된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한수식: 영광군 상중리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자육이 새겨져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상중리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시며 농장이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도들도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그이의 교시대로 지력을 높이고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는것과 동시에 농민들의 열의를 불려일으켜 농사를 알심있게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장이 알곡생산에서 모범적인 농장대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가르쳐준대로만 하면 성과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김충성: 당의 령도는 조선청년운동의 생명이며 청년대군의 위력은 당의 령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당의 구상을 받들어 조국보위 초소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부문으로 남먼저 달려나가 자기의 젊음과 힘으로 곳곳에서 위훈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선구자, 혁신자, 영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자: 조선로동당의 친인민적본태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에 의하여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한수식: 물고기가공을 하는 녀인들과 신발을 만드는 로동자들, 식당주방의 조리사들에게도 머리숙여 인사하시는 인자하고 소탈하신 그이의 모습에서 인민은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느끼였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그대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뚜렷한 과시로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당의 수위에 모시였기에 당과 인민은 언제나 일심동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웅: 정말 그렇습니다. 진정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세차게 펄럭이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는 존엄높은 우리 인민의 모습이 뚜렷이 새겨져있다고 우리는 긍지높이 말할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어 감사합니다.



한수식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로선

조국에서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다지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기 위한 건설이 중단 없이 진행되고있다.

올해에만도 순천린비료공장이 일떠서고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완공되어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금속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자립의 토대가 질량적으로 강화되고있다. 국내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업을 창설하고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며 현대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양묘장들과 남새온실들이 속속 일떠서고 지방들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경제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지고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국이 안전하게 사회주의건설을 내밀고있는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선견지명으로 나아갈 길을 제때에 정확히 제시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중첩될수록 조선로동당은 옳바른 로선과 정책들의 제시로 인민들이 승리를 확신하도록 이끌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의 설계도를 펼치고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조건에서 자기의 발전로선을 정확히 선택하는것은 조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주객관적인 정세와 조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선과 정책을 옳게 세워야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우여곡절이 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7월까지 여러 회의들을 소집하였다. 회의들에서는 혁명발전의 요구가 반영된 로선과 파업들이 제시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의 사상도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사상이다.

당시 조국앞에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아가 할 과제가 나섰다.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대세력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어질것이며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책동할것이었다. 그리고 자체의 위력을 강

화하고 자급자족의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바로 이러한데로부터 조선로동당은 정면돌파전의 사상을 제시하였던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도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오늘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볼수 있으며 들끓는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날에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새로이 하는 평양 종합병원건설장과 단천발전소건설장,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를 비롯하여 인민들은 곳곳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들은 난관들을 극복해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봉착한 난관들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것이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라고,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곁을 함께 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조국에서 약동의 숨결이 높뛰는것은 인민이 당에 대한 믿음,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는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가슴마다에 체득하였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순천린비료공장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새형의 궤도전차
주체108(2019)년 촬영



민들레학습장공장 주체105(2016)년 촬영

룡악산비누공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혈전의 준비

(전호에서 계속)

박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아쉬워하면서 출로는 돈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꾸려놓은 혁명촌들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에게 호소하여 돈을 모아보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제의를 따르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뽑아낸다면 몰라도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무기를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목숨을 내대고 총을 탈취하는 것보다는 돈을 모으는 일이 훨씬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나는 돈을 주고 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그닥 장려하지는 않았다. 인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독립군의 식이였지 우리 식이 아니었다.

설사 돈을 모았대야 그것은 큰 밑천으로 될 수도 없었다.

언제인가 최현동무는 산림대에 가서 기관총 한자루를 1500원에 사온 일이 있다. 소 한쪽에 한 50원씩 하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셈하면 소 30마리정도 팔아야 기관총 한자루를 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 수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내도산쪽에 가서 독립군들이 묻어놓은 총을 몇자루 파냈다.

다른 현들에서도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경쟁적으로 회수하였다.

홍범도회하의 독립군은 청산리 전투 후 많은 량의 총과 탄알

을 대감자일대에 물어버리고 소만국경으로 퇴각하였다.

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내람한 일본수비대가 자동차 수십대를 가지고와서 그 총과 탄알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명월구회의가 있는 다음 왕청동무들은 대감자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일본수비대원들이 파헤치고 갔던 자리에서 근 5만발의 탄알을 회수하였다.

수중에 몇자루의 총이 생기자 우리는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적의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투행동에로 넘어갔다.

첫 공격목표로 쌍병준이라는 지주의 집이 선정되었다. 그의 수하에는 40명가량 되는 보위단이 있었다. 단장은 후날 《신선대》 대장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최현동무네 부대에 녹아난 리도선이라는 자였다.

보위단병실은 지주집 토성안에도 있고 토성밖에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정찰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로 습격조를 편성하고 소사하본부락에 있는 쌍병준이네 집을 불의에 기습하여 10여자루의 총을 탈취하였다.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만강연안의 모든 곳에서 군중적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졌다. 혁명군중들은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유격대소조성원들과 적위대원들, 소년선봉대원들, 지방돌격대원들을 선두로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 떨쳐 일어나 일제침략군대와 일만경찰들, 친일지주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여냈다.

《요창부요밍!》이란 그때에 나온 말이다. 이것을 조선말로 번역하면 총만 필요하고 목숨은 필요없다는 뜻이 된다. 세관이나 보위단이나 공안국이나 지주집 같은데 가서 총을 내들고 《요창부요밍!》하고 소리치면 겁많은 관리나 부랑이들과 반동지주들, 경찰관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무기를 다 내놓았다.

《요창부요밍!》이란 말은 동만의 모든 혁명조직구들에서 하나의 류행어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오중화의 아버지(오래회)와 삼촌도 밥상다리로 만든 가짜권총을 들고 《요창부요밍!》으로 경찰과 자위단원들을 위협한 다음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적위대에 보내주었다. 그 소문이 안도까지 퍼져왔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로인들의 기지와 대담성에 탄복하였다.

후날 왕청에서 오래회로인을 만나 《어떻게 되어 그런 멋있는 궁리를 하시었습니까?》하고 물으니 로인은 웃으면서 《밤에 보니 밥상다리도 권총같습디다. 우리한테야 총이 있습니까, 작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밥상다리를 꺼내들었지요. 급하니 그런 궁리도 납디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로인의 말이 과연 옳았다. 정말 우리는 그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무기를 탈취하는 싸움에 파감하게 몸을 내던지었다. 그것은 최대한의 창발성과 지혜를 요구하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동만의 혁명가들과 혁명적인

민들은 때로는 헌병으로, 때로는 구국군부대 군인으로, 때로는 일본령사관 관리나 대부호, 무역상 같은것으로 변화무쌍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정황에 맞게 립기응변하면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어떤 고장에서는 녀성들이 빨래방치나 끈봉으로 군경들을 까놓히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무장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전민항쟁의 개시를 위한 서막이었고 예비적인 싸움이였다. 이 싸움에는 모든 혁명조직들이 다 발동되었고 전민이 다 동원되었다. 혁명이 무기를 요구하는 시기가 도래하자 군중은 서슴지 않고 이 싸움에 떨쳐나섰다. 그 과정에 그들은 각성되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한것이다.

자기 무기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우리의 구호는 도처에서 큰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이러한 투쟁행정에서 우리는 많은 혁명동지들을 잃었다. 그때 우리가 마련한 한자루 한자루의 총에는 혁명동지들의 뜨거운 피가 스며있었고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깃들어있었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고 무기를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여냈다.

처음에는 야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칼이나 창과 같은 도창무기를 만들었다. 그다음에는 권총과 작탄을 만들어냈다.

그런 권총가운데서 제일 정교하고 쓸모있게 만들어진것은 왕청현 남구반제청년동맹원들이 제작해낸 《비지깨권총》이였다. 함경북도지방사람들은 로씨야식으로 성냥을 《비지깨》라고 하였다. 그 권총을 《비지깨권총》이라고 한것은 딱성냥으로 총알화약을 만들어 약통실에 넣었기때문이다.

그들은 총신도 양철로 자작 만들었다.

동만의 병기창들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으로는 화룡현 금곡에 있던 신성덕수리바위굴병기창과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의란구 남양촌의 주가골병기창들을 들수 있다.

수리바위굴에 있던 병기창에서는 연길현 팔도구광산의 혁명조직을 통해 얻은 폭약으로 폭탄까지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소리폭탄이라는 폭탄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소리만 요란했지 살상력이 별로 없었다. 그 약점을 퇴치하려고 만든것이 고추폭탄이였다. 소리폭탄보다는 효과가 좋았지만 이 폭탄도 역시 냄새만 지독했지 살상력은 거의 없었다.

화룡동무들은 그후 고추가루 대신 쇠조각을 넣어 살상도가 높은 폭탄을 만들었다. 그 폭탄이 바로 유명한 연길폭탄이다. 연길폭탄이 세상에 나온 다음 우리는 화룡에 있는 박영순을 데려다가 소왕청 대방자에서 이틀 동안 작탄강습회를 조직하였다. 동만각지에 작탄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습회에는 간도 여러 현들에서 온 병기창성원들과 유격대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나는 첫날 강습에 출연하여 화약제조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그 당시 유격대의 병기창들에서는 작탄을 만들 때 쓰는 화약을 광산에서 비밀리에 구입해오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적들이 화약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였기때문에 이 방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였다. 우리는 민가에서 자체로 쉽게 화약원료들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폭약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강습회에서는 그 비결을 전습시키고 각 지방에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박영순은 작탄제조법과 그 사용법, 보관취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들이 화룡에서 자

력갱생하여 개발해낸 폭탄제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강습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찬탄을 자아냈다. 수리바위굴병기창을 주관한 박영순, 손원금동무들이 아주 재간있는 동무들이였다. 후날 이 병기창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믿음직한 무기제조기지, 수리기지로 되어 항일전쟁에 큰 공헌을 하였다.

만일 어느 문필가가 무장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담성, 립기응변의 기지와 비상한 창발성에 관한 일화들을 종합하여 형상적화폭으로 펼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로 엮어질것이다. 수천수만년력사박에 값싼 로동력으로 밀려나 무지와 몽매속에서 헤매이던 인민대중, 망국민의 서러운 신세에 이를 갈고 피눈물을 뿌리면서도 그것을 숙명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소박한 인민대중이 마침내 자기 운명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성스러운 해방투쟁의 길에 들어선것이다.

지방조직들에서 로획했거나 제작해낸 무기를 볼 때마다 나는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개척하려고 한 우리의 결의가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재삼 자랑스럽게 확인하곤 하였다.

우리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기반을 축성하는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인민대중을 실천투쟁속에서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단련시켜 그들을 항일전쟁에 든든히 준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였으며 광범한 대중이 자각적으로, 거족적으로 동원되는 여기에 바로 최후승리의 담보가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기술개건을 전망성있게

오늘 조국에서는 공업의 기초인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우고 화학공장들의 현대화와 생산활성화에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굴지의 주체비료생산기지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절약형기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흥철남생산부기사는 《올해

기업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전망성있는 기술개건을 진행하여 비료생산을 늘여나가고있다. 동

시에 모든 생산공정들을 절약형 생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기업소에서는 생산자대중이 현대화사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불러일으켜 그것이 비료생산성파에로 이어지게 하고있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비료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증기생산공정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지혜를 합쳐 생산과정에 나오는 공업폐설물과 폐가스를 리용하여 98%이상의 연소효율을 보장할수 있는 선진적인 증기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결과 수십만의 공업폐설물이 효율높은 연료로 전환되어 비료생산에 필요한 고압증기를 충분히 생산보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환경보호측면에서도 보다 큰 개선을 가져왔다.

선탄공급직장의 생산자들은 생산과 함께 기술혁신도 동시에 내밀어 봉탄건조공정의 운반선을 새롭게 확립하여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전력계통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실시간감시와 자동조종을 실현할수 있는 조종프로그램을 개발한데 이어 효율적인 측정보호장치를 비롯한 동력설비들을 갖추어놓음으로써 연간 1만수천kWh의 전력을 절약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주물품보장을 맡은 기술자, 노동자들도 주조시간을 10일로부터 2시간으로 단축하고 자재소모량은 1/20로 줄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원료건조공정의 종업원들도 과학기술이자 생산장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습득하여 비료생산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는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사업이 빠른속도로 진척되어 절약형기업체로서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대중이 기술개조의 주인이 되어

안주뿔프공장은 각종 뿔프들을 생산해내는 힘 있고 능력있는 공장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나라의 중요 대상건설장들에 필요한 뿔프들을 이 공장에서 생산보장하였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조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 새형의 뿔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있다.

지난 시기 고정된 몇개의 제품생산에 머무르고있던 공장에서는 최근년간 평양종합병원건설장과 지하초염수생산기지들, 장거리바다물수송관과 바다물정화시설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

들에 수십종의 새형의 뿔프들을 개발하여 보내주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높은 기술적성능을 요구하는 뿔프들을 개발한데 이어 계열생산을 위한 토대도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생산부기사장 신철남은 《공장에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도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비결의 하나는 생산자대중이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간데 있다.》라고 말하였다.

새형의 뿔프들을 생산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소형주물품계열생산을 위한 연소모형주조공정의 설비들도 공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자체로 창안한것이다.

전통적인 주조방법에 의한 주물품생산공정은 품이 많이 들고 운영이 복잡하며 제품의 질과 생산성이 낮은 등 여러가지 결함이 있었다. 흐름선화된 연소모형주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주물품 생산시간을 줄이고 원가를 종전보다 낮추며 뿔프 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었다.

주물직장의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한 3중공기에열원통식 열풍용선로도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에 의하여 일떠선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폭스대신 무연탄을 리용할뿐아니라 적은 량의 석탄을 소비하면서도 주물품제작에 필요한 쇠물을 생산해내고있는 이 열풍용선로는 공장에 있어서 귀중한 보배로 되고있다. 폐열을 최대한 리용하여 무연탄의 연소효률을 높일수 있게 개조한 용선로는 개조전에 비하여 100°C나 더 높은 공기에열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로의 온도가 올라간것만큼 용해속도가 빨라지고 쇠물의 질이 좋아져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관직장에서는 연소효률을 높일수 있게 가열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압연기의 성능을 최대로 높여 많은 연료와 동력을 절약하고있다.

청년가공직장에서 타닝반과 보링반, 선반을 비롯한 가공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4in종합가공기구를 창안제작하여 제품가공속도를 1.3배로 높일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공장에서는 생산토대를 기술적으로 완비한데 맞게 전기절약형 여러단원심뿔프와 고향정 여러단원심뿔프, 지하초염수뿔프, 복수뿔프 등 성능이 좋은 뿔프들을 다량생산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김 평

력사인물

최초의 양악대 지휘자 백우용

백우용(1880년-1950년)은 근대시기의 음악가이며 최초의 양악대지휘자이다.

1901년에 그는 한성관립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후 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남달리 음악적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졸업후 양악을 연구하면서 취주악기를 익혀갔다.

당시 우리 나라에 양악기들로 무어진 군악대가 처음으로 조직되자 그는 이 악대에 들어가 전문적인 음악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첫 양악대지휘자로 되었다.

그의 노력에 의해 군악대는 생소한 양악기들의 복잡한 연주기술을 능숙하게 해결하였으며 10여개 나라의 국가, 국민가, 무곡, 행진곡, 레식곡, 가요 등 크고작은 형식의 취주악곡들을 훌륭히 연주할수 있는 기량이 높은 취주악대로 자라났다.

1915년 일제에 의하여 군악대가 강제해산당한 후 그는 온갖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30여명의 뜻있는 악사들로 1918년경에 경성악대를 조직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그나마도 해산되었지만 그는 우리 나라 양악대를 기어이 살려나가려는 일념 밑에 사회적지원을 받아 17명의 성원으로 다시 악대를 조직하였으며 각 지방을 다니면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진행하였다.

그가 편곡하여 지휘한 종목에는 《방아타령》을 비롯한 많은 민요곡들과 서양곡들도 들어있다. 그는 새로운 악곡도 적지 않게 창작한것으로 인정되나 오늘까지 그의 작품이 밝혀진것은 없다.

그는 연주활동과정에 유능한 취주악연주자들을 많이 키워냈으며 여러 중학교들에 취주악대를 조직하여 우리 나라 학교취주악운동과 양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백우용은 이처럼 취주악운동을 통하여 근대 조선음악 특히 양악발전의 길을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

* * *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얼마전 본사기자는 화학공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망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것과 관련하여 화학공업성 국장 리일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오늘 조국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공업의 기초인 화학공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국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싶이 화학공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업입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원만히 생산보장할 수 있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수 있으며 갖가지 식료, 일용필수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물론 앞으로로도 인류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경제활동과 문명생활은 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그 수준이 좌우된다고 말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일찌기 우리는 화학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유명한 명제도 내놓으시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주체102(2013)년에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웠으며 주체105(2016)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과업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도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국내원료와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화학공업을 창설하고 화학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며 현대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습니다.

기자: 우리도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취재하는 과정에 화학공업의 구조를 국내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춘 공업구조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국장: 어디 가나 들끓고있습니다.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지난 5월에 순천린비료공장의 준공식을 진행한 그 기세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맹활약을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대상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그들의 열의에 의하여 순천지구에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에서 중요대상인 메타놀생산공정을 완공하기 위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공정들을 전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년차별로 추진하며 새형의 기능성박막생산공정, 멜라민수지생산공정 등을 완비해나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 화학공장들에서 질 좋은 섬유와 방향족화합물들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들을 개건하고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리오셀섬유생산공정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켜나가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있으며 갈탄에 의거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있습니다.

우리의 원료와 자재에 의거하여 화학공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들의 열의에 의하여 화학공업은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경제는 더 활성화되고 인민생활도 더 향상될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늘어나는 꿀벌떼

어느 한 나라의 환경보호단체는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하여 꿀벌들이 줄어들고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속도로 꿀벌이 사라진다면 농산물값은 더욱 올라가고 식량위기가 악화되는것을 피할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꿀벌의 유익성은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꿀을 만들어주는데만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야생 및 재배식물의 85%이상이 꿀벌과 기타 곤충들에 의해 꽃가루받이를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이렇듯 리로운 꿀벌의 감소는 단순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보호를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는 조국에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 꿀벌치기도 적극 장려되고있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아카시아림, 피나무림, 싸리나무밭들이 조성되고 꿀벌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들과 애호가들이 늘어나고있다.

평양시지방공업관리국 평양꿀생산협동조합에서도 많은 꿀벌들을 치고있다.

조합의 관리공들은 꿀벌치기도 나라의 재부를

늘어나가는 애국사업이라고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가고있다.

그들은 해마다 수백, 수천리길을 걸으며 시기별로 꿀벌을 칠수 있는 밀원지들을 세밀히 조사하고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꿀벌들을 늘이고있다.

오랜 기간 수도 평양은 물론 북방의 함경북도 연사군과 량강도 풍서군 등 나라의 많은 지역들에 나가 꿀벌치기를 하여온 이곳 관리위원장의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관리공들의 사양관리기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하여 이곳에서는 최근년간에만도 꿀벌통들을 수십개나 더 늘이여 여러 사업소들과 애호가들에게 보내주었다.

이와 함께 많은 꿀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다.

조합에서 생산한 아카시아꽃꿀과 피나무꽃꿀은 당도함량이 높으면서도 맑고 깨끗하며 향기로와 호평을 받고있다.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산과 들, 공원과 유원지 등 어데 가나 꿀벌들이 수많이 날아들고 있다.

본사기자





《코드쉐프》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1부류)에서
우승한 기쁨을 안고

김척공업종합대학의 강철룡, 김성은학생들이 지난5월에 진행된 국제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서 1등과 2등을 쟁취하였다.

경연에는 80여개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대학생,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코드쉐프》경연은 인터넷프로그래밍경연들중의 하나로서 매달 진행하며 경연기간이 길고 프로그램작성에 대한 도전이 치렬하여 세계적으로 인기와 권위가 높다. 경연은 코드작성능력뿐만아니라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완강한 정신력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두뇌전의 대결장이라고 할수 있다. 하다면 조국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승리할수 있었는지.

풀이의 열쇠를 찾기까지

사실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처음부터 경연에서 우승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려가 앞선 그들이였다. 한것은 이번 경연에 세계적으로 한다하는 프로그램강자들이 특별히 많이 참가하였기때

문이었다. 경연에 참가한 아시아의 한 선수는 국제정보학올림픽과 《코드쉐프》경연 등에 참가하여 우승한 선수였다. 더우기 이번 1부류경연에는 종전처럼 8개의 문제가 아니라 10개의 문제가 제시되었고 난도도 높았다. 이에 비해볼 때 학생들의 경



1등을 한 강철룡학생(왼쪽)

힘은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하여 학생들은 경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동안 모태기였다. 그러한 그들이 자각한것은 지난 시기 선배들이 경연들에서 우승하여 공화국기를 휘날리었

《 코드쉐프 》 우승자들

승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기록으로 된다.

우승후의 학생들

학생들은 《코드쉐프》경연의 우승자들이지만 자만을 모르고 보다 분발하고있다. 경연후 그들은 경연 전과정을 분석 총화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 그들은 자기들의 우점과 부족점, 그것을 더 살리고 극복하기 위한 방도도 찾게 되었다.

교원들은 학생들이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교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교원들의 지도밑에 능력을 한층 강화한 학생들은 지난 프로그래밍경연들에 제시되었던 수천개의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활용해보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보다 깊이 다지고있다.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경쟁하며 앞서나가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다는것과 그로 하여 세계가 대학의 실력에 대하여 인정하고있는 사실이었다.

선배들이 창조한 우승의 전통과 대학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려는 각오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자리잡았다.

경연이 시작되어 짧은 기간에 도전문제외 7개의 문제를 푼 그들은 난도가 높은 2개의 그래프리론문제풀이도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답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

마지막 하루

경연에서 최종적으로 승부를 가르는것은 도전문제이다.

도전문제경기는 누가 더 최량화, 최적화된 알고리즘설계

터 다시 되새겨본 강철룡은 동적계획법이 부족점은 있지만 합리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부족점을 퇴치하고 갱신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다량의 점수가 오르고 실행시간을 많이 단축할수 있는 최량화, 최적화된 알고리즘설계를 완성하였다. 그렇다고 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출수 없었다. 다른 선수들이 놀라운 기록을 세울수도 있었던것이다. 더우기 도전 문제는 점수를 마음대로 감출수 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있는 최종풀이의 점수를 가늠할수 없었다.

(경연마감까지는 60분이 남았다. 이 60분을 60시간맛잡이로 노력하여 점수를 올려야 한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해나갔다. 이렇게 그는 경연의 마지막순간까지 완강한 정신력으로 두뇌전을 벌려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김성은학생은 경연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들의 우



2등을 한 김성은학생

를 내놓는가 하는 대결인 동시에 누가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해내는가를 겨루는 정신력의 대결, 인내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그들이 여러 방법을 적용해보았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하루가 남게 되었다. 제시된 문제들에 적용해본 알고리즘들을 처음부



알고리즘에 대한 강의를 받고있다.

상식

대뇌기능을 높이는게 좋은 손가락운동

연구자료에 의하면 대뇌기능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손가락운동이라고 한다. 손가락을 운동시켜 대뇌를 자극하면 뇌세포의 퇴화과정을 저지시키거나 지연시킬수 있으며 대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손가락운동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첫째로 될수록 두손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한손만을 움직이면 반대쪽의 대뇌만을 자극하게 되므로 늘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왼손을 많이 단련시켜야 한다.

둘째로 손가락의 민활성을 키워야 한다. 그러자면 서

예와 그림그리기, 수공예품만들기 등을 하는것이 좋다. 셋째로 피부의 민감성을 단련시켜야 한다. 평시에 두손을 더운물과 찬물에 담그어 단련시키거나 솔로 손바닥과 손톱을 가볍게 두드리는것이 좋다.

넷째로 손가락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실례로 늘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로 손가락의 활동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손가락운동을 위한 철구를 자주 굴리거나 손바닥에 호두알을 놓고 굴리는것이 좋다.

* * *

인기있는 만화영화창작가들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는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판독있는 만화영화창작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촬영소는 작가, 연출가, 미술가, 작곡가, 화술 배우, 녹음사 등 능력있고 재능있는 수백명의 창작력량을 가지고있다.

주체46(1957)년 9월에 창립되어 인형만화영화 《신기한 복숭아》, 만화영화 《금도끼와 쇠도끼》 창작으로 첫걸음을 뗀 촬영소는 지금까지 수백편의 만화영화들을 제작하여 내놓았다.

만화영화들은 국내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참외를 굴린 개미》는 벨라리아에서 진행된 와르나국제만화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도적을 쳐부신 소년》, 《날개달린 룡마》를 비롯하여 많은 만화영화들이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상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지난 시기 창작된 다부작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 《다람이와 고슴도치》는 창작된지 오래되었지만 오늘까지도 조국의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영화에서 나오는 주제곡들과 그림들은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고있다.

촬영소에서는 최근년간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100부까지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주제가 다양하고 형상수법이 새로운 다부작만화영화들을 창작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상영된 역사만화영화 《고주몽》도 그러한 만화영화들중의 하나이다.

만화영화는 현재 32부까지 제작되었다.

연출대본을 완성한다.



영화는 첫 봉건국가 고구려를 일떠세운 고주몽에 대한 력사적사실을 반영하고있다.

3D제작기술을 도입한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력사나 전설로만 전해오던 선조들의 모습과 생활을 3차원으로 실감있게 볼수 있게 한다.

작가 김춘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영화(1부-10부)가 상영되었을 때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서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섰었다. 그것은 관중이 고주몽을 당대의 산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그림으로 볼것 같아서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 세부 등 모든 형상요소들이 력사적사실에 충실하였기때문에 작품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것 같다고 하였다.

지난 시기 아동들의 심리를 반영한 만화영화들만을 창작해오던 촬영소에서 방대한 력사적사실을 담은 작품창작은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더우기 종전의 환상과 과장 등 전통적수법으로는 당대사회의 인간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낼수 없었다.

창작가들은 력사에 기록되어있는 신화들과 전설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작품의 생리를 살리는 세부와 장면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어머니가 준 보리종자를 미개척지에 뿌려가는 주몽의 형상이라든가 비류국왕앞에서 주몽이 옥돌공예를 깨버리는 세부 등은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력을 거슬러 주몽과 함께 울고웃으며 그

작품형상에 진념하고있는 미술가들



시대를 체험한듯 한 심정이다. 주인공 주몽이 실재한 배우가 아닌것이 유감이다.》, 《영화는 어제를 통해 오늘을 비추어보고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지금 창작가들은 나머지 런속부들을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연출가 김경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리 문학대본이 좋아도 연출, 미술, 화술 등 세부공정들의 형상수준이 원만히 따라서지 못하면 작품의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미술가들은 연출가의 의도에 맞게 인물원화와 그림대본들을 창작하고 원도가들은 거울앞에서 직접 연기까지 해보면서 생활론리, 감정론리에 맞는 화면들을 형상해내고있다.

이와 함께 인물들의 의상과 머리칼의 처리, 물, 불, 연기를 비롯한 세부들에 강한 특수효과를 주는 등 만화의 립체감을 살리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화술배우들도 매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는 대사형상을 창조하느라 연기훈련에 여념이 없다.

인물의 원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번역영화의 화술과는 달리 만화영화의 화술은 그림에 인간의 숨결을 부여주어야 하는것만큼 배우들의 높은 화술기량을 요구하게 된다고 실장 리은주는 이야기하였다.

배우들 대다수가 배우생활을 한지 5년안팎의 신인배우들이지만 모두가 1인다역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기본역으로서 주몽역을 담당한 리영주, 대소왕자역을 수행한 목금성, 소서노, 류화역을 맡은 동윤미는 30대의 젊은 배우들이다.

단장 홍연수는 《만화영화를 사람들의 생활에 더 가깝게 접근시켜 누구나 즐겨보는 영화로 만드는것이 우리 창작가들의 자세이다.》라고 말하였다.

지금 촬영소에서는 세계적규모에서 주문 및 합작만화영화들도 창작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작품의 편집을 완성해간다.



대사녹음을 진행한다. 주체108(2019)년 9월 촬영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평양정향건재공장에서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에 이바지하는 질 좋은 건재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칠감, 콘크리트첨가제, 방수제, 보온재, 경소마그네샤합판을 비롯한 많은 제품들은 국규로 등록되었으며 특허증서를 받았다. 이러한 제품들은 중요대상건설장에서 적극 리용되고있으며 많은 기관, 단위들에서 수요가 높다.

10년전에 창립된 공장은 원래 자그마한 칠감 공장이었다고 한다.

생산하는 칠감도 얼마 안되었고 질도 낮아 점차 수요자를 잃고있었다. 이것은 공장이 주저앉는가 아니면 다시 일떠서는가 하는 문제로 나섰다.

그때 공장종업원들속에서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한다. 명색이 칠감공장인데 온전한 마감건재하나 건설장에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가책이 컸던것이다. 가책이 큰것만큼 공장을 추켜세우려는 종업원들의 결심도 확고하였다.

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섰고 모든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다.

새 제품개발에 지혜를 합쳐간다.



그때부터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기술학습과 기술혁신이 대중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일군들은 건재공업의 발전추세를 연구하는 한편 부족한 분석설비들과 실험기구들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자체로 마련한 측정설비만 해도 30여종이나 된다.

분석설비들과 실험기구들을 갖추어놓은 그들은 원자재의 분석과 계량등을 진행하였다. 결과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서도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었고 경영활동에서 실리도 얻게 되었다.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길도 열어놓게 되었다.

이어 그들은 새 제품개발도 적극 내밀었다.

그들이 처음 만든 제품은 무기질보온재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실패가 계속되었다.

맥을 놓고 수입원료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장의 종업원들은 실패원인을 찾고 실험을 계속하여 질 좋은 보온재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들은 그런 열의로 경소마그네샤합판을 개발



공장에서 개발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생산한것을 비롯하여 30여가지의 건재품을 련이어 만들어내었다.

그 나날 그들은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수 있다는것을 마음속에 새겨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해도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분발할 때 보다 질 좋은 제품들을 개발생산할수 있다는것도.

지금 공장에서는 첫째도 질, 둘째도 질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새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새 품종육종에 힘을 넣는다.

화초 연구사들

보다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꽃은 인간생활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

평양화초연구소에서 도시 녹화와 실내장

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꽃품종들을 련이어 내놓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연구사들은 관상적 가치가 높은 10종의 꽃품종을 새로 육종하였다.

만첩이면서도 특이한 색깔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국화과의 꽃들과 화단조성과 꺾음꽃으로도 리용이 좋은 노란색의 튤립은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

를 준다.

큰송이꽃장미와 흰색의 영구화는 관상적효과가 크고 여름과 가을의 화단장식과 말린꽃제작에도 널리 리용할수 있다.

이밖에 새로운 꽃나리품종들과 글라디올라스, 키낮은주머니꽃 등도 꽃피기가 빠르고 자연조건에서도 쉽게 피울수 있어 거리의 풍치림조성과 실내장식에 효과적이다.

새 품종의 꽃들은 가물과 저온에서도 잘 견디며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오래고 번식률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비늘쪽심기에 의한 알뿌리속성방법을 확립하여 새로운 꽃나리품종들을 연구한 박명일연구사는 《풍토순화의 방법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진귀한 화초들을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가장 빠

리 적응시켜 손쉽게 퍼칠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뿌리증식은 조직배양의 방법으로밖에 할수 없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그것은 알뿌리자체가 빨리 퇴화되거나 병견딜성이 매우 약하고 더우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지 않아 야외재배가 불가능한것으로 되어왔기때문이다.

박명일연구사는 야외와 온실재배를 결합한 비늘쪽심기에 의한 알뿌리속성증식방법을 연구하여 번식기일도 단축하고 저온과 가물, 병견딜성이 강한 충실한 알뿌리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유전자전이기술을 리용하여 새 품종의 화초를 육종해냈다.

새 품종인 《사철국화ced-9》는 저온견딜성이 매우 강한것으로 하여 그 증식과 리용에서 전망이 좋은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품종의 선인장도 재배하고 있다.

온실에서는 가지심기와 접번식의 방법으로 밝고 아름다운 색을 가진 희귀한 선인장들이 재배되고있는데 그 수는 60여종에 달한다.

리명선연구사는 색선인장, 금선인장, 원통선인장, 토끼선인장이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선인장을 실내공기정화효과와 약리작용으로만 리용하여왔다. 그러나 오늘날 선인장의 관상적효과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속에서 인기화초로 되고있다.》

연구소의 말린꽃제작기술도 높다.

장미, 백일홍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초들과 보리, 조 지어는 흔히 볼수 있는 자연풀들을 가지고 제작한 갖가지 꽃다발과 꽃바구니 등 연구소에서 제작하고있는 제품의 품종과 가지수는 10여종에 수백가지나 된다.

특히 말린소나무는 가지와 줄기, 솔잎의 색과 형태가 생신하고 선명하게 재현되어 마치 살아있는 소나무를 보는듯 한 느낌을준다.

리철준부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온 나라를 백화만발하게 하는데서 우리 연구소가 맡고있는 임

무는 중요하다. 앞으로 화초재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새 품종의 화초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겠다.》

평양시의 대성산기슭에 위치하고있는 연구소는 창립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150여종의 진귀한 화초품종들을 육성하여 조국땅 곳곳에 널리 퍼져왔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여러가지 화초들을 재배해가는 연구사들



《우리의 일》

오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교육조건과 환경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문 일군들의 노력만으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수 없다.

조국에서는 오래전에 해마다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제정하였다.

학교지원사업은 어디서나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되고있으며 누구에게나 《우리의 일》로 되고있다.

올해에도 각 도, 시, 구역(군)들에서 유치원, 소학교, 초, 고급중학교, 대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평양시 락랑구역에서 교육지원이 활기를 띠고 추진되고있다.

구역에서는 교육후원사업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면서 후원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거리들을 찾아하도록 하고있다.

락랑구역은 시의 중심구역들과 달리 농촌을

끼고있는것으로 하여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한계단 높이자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구역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의 인재를 많이 키워내자면 교원력량만이 아니라 해당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반드시 안받침되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구역의 일군들이 스스로 농촌학교들의 교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건설용자재들을 맡아 풀어주고있으며 늘 학교들에 나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인민위원회의 일군들도 교육단위들에서 가상, 증강현실기술을 교육에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로 모든 사업이 지향되도록 도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평양인견사공장, 두단오리공장, 조선민족유산보존사, 락랑구역안의 협동농장들을 비롯한 교육후원단체들이 많은 방조를 주고있는데 학교와 후원단체들의 뉴대는 매우 긴밀



교육환경이 개선된 락랑구역 충성소학교

하다.

이들의 마음에 떠받들려 락랑구역안의 모든 학교들에 교육정보화가 실현되었으며 락랑구역 충성소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에 인공잔디운동장이 꾸려지고 락랑구역 충성2유치원을 비롯한 여러 유치원마당들에는 고무깔판들이 놓아지게 되었다.

락랑구역 금대고급중학교를 비롯한 농촌학교들과 유치원들도 시내교육단위처럼 모든것이 일신되었다.

후원단체들은 학교와의 련계밑에 교육설비들을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갱신할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진척시키고있다.

교정에는 구역의 일군들과 후원단체들의 모습만 비껴있는것이 아니였다.

어느해인가 비바람과 폭우로 농촌에 위치한 락랑구역 송남고급중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는것을 알게 된 만수대창작사의 종업원들은 교육을 위해 투자를 한것만큼 인재들이 배출된다고 하면서 학교지붕재를 새것으로 교체해준것을 비롯하여 성의있는 지원을 하였다.

《우리의 일》로 여기는 많은 기관, 단위의 교육지원열의에 의해 락랑구역안의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과목경연과 체육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고있다.

구역의 일군인 박경숙은 《아직 해야 할 사업은 많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네일내일, 큰일작은일이 따로 없다. 고조되는 교육지원열기로 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은 더욱 일신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교육정보화실태를 료해하는 구역의 일군들



교육후원단체들이 마련한 학습참고서들



절세위인들과 맺은 혈연의 정은 총련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전호에서 계속)

2

저는 50여차례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었고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한생을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그 숭고한 정의 세계만은 종시 그 끝을 헤아리지 못한 불초한 전사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은것은 공화국창건 42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던 주체79(1990)년 9월 중순 어느날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었는데 우리들이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는 사위가 온통 어둠으로 뒤덮인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도착하였다는것과 지금은 식사시간이므로 래일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조국의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국땅에서 고생하던 혁명동지들이 왔는데 어서 만나보자고, 식사도중이라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시며 어서 데려오라고 이르시었다고 합니다.

그날 기쁨과 송구스러움에 어찌할바를 모르는 저희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의 건강과 총련중앙간부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어주시고나서 저희들을 한집안식솔처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며 밤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시었습니다.

그 어떤 격식이나 간격도 없이 우리 총련일군들을 친혈육으로, 동지로 따뜻이 대해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이처럼 만나 뵈은 첫 순간부터 따뜻한 인정미를 느끼게 하는 한 없이 자애깊은분이시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위대한 장군님을 거듭 만나뵈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나날에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주시는 그 불같은 헌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와 주체88(1999)년 4월 20일 총련일군들에게 하신 강령적교시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의 빛발인 동시에 아버지수령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뜻피워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려는 숭고한 뜻의

발현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총련일군들은 애국운동의 진리와 동포군중과의 사업묘리도 터득하였고 총련을 둘러싼 일본의 환경과 세계정세변화의 추이에 대한 시야뿐만아니라 경제와 과학, 문학과 음악, 체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식도 넓히게 되었습니다.

총련일군들을 애국운동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떠나면 현지지도의 길에 몸소 데리고다니기도 하시고 달리는 야전렬차와 집무실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같이하기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총련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자그마한 로선상착오나 순간의 좌절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수령님께서 정해주신 주체의 길만을 곧바로 걸으며 힘있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으로 위력떨쳐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김일성**민족의 일원으로 여기시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로력영웅, 높은 국가수훈자의 영예를 안겨주시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도 헤아리시여 사랑의 화객선인 《만경봉-92》호를 마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습니다.

...

뜻밖의 자연재해로 재일동포들의 신상에 불행이 들이닥칠 때마다 설사 우리가 죽을 먹고 굶는 한이 있더라도 위문금을 많이 보내주어야 한대시며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분도 아버지장군님이시였고 일본반동들이 총련을 모해하고 동포들을 박해할 때마다 강력한 국가적조치로, 천겁만겁의 사랑의 성벽으로 지켜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총련일군들을 한전호속의 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주실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으며 일단 주신 믿음은 숭고한 의리로 끝까지 지켜주시었습니다.

총련의 1세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것처럼 흠모하고 따른것도 장군님의 그 정에 끌리고 그 정에 탄복해서이며 그들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원로로, 애국충신으로 값높은 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빛내일수 있는것도 정의 바다, 사랑의 바다인 우리 장군님의 품에 안겼기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은 본가집에 갈 때에는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갔다고, 앞으로 조국에 올 때에는 본가집에

잊지 못할 우정

세월은 모든것에 삭막을 가져온다지만 날과 달이 흐를수록 더 해만지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우리 가족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이야기이다.

짬만 있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가족을 접견해주시던 아름다운 화폭들과 태양같이 환하고 아버지같이 자애로우신 그이의 미소가 마치 어제일이런듯 나의 눈앞에 삼삼히 떠오른다.

그이와 우리 가족의 연고는 할아버지 현하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이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에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 우정을 두터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아버지와 서로의 의견을 나누시면서 뜨거운 동지적우애로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민족의 독립운동에 한 몸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현하죽할아버지가 맺은 우정은 단순히 벗으로서 맺은 우정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에 맺어진 두터운 혁명적 우정이였다.

그이께서는 할아버지의 맘머느리인 우리 어머니 김순옥과도 인연이 깊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자신께서 현하죽선생의 집에서 열흘이나 스무날, 지어는 한달 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시였다고 회고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때 자신께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고, 어떤 때에는 닭도 잡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를 추억해주시였다.

하기에 우리 어머니는 늘 나에게 죽기 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오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방문의 길에 올라 렬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동북지방을 지나가실 때마다 만주의 낮익은 산천을 바라보시며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생각하시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의 후손들은 다 못한 두명이라도 살아있을터인데 중무소식이라고 못내 안타까와 하시였다고 한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우리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명의로 우리 어머니를 초청해주시고 회포를 나누시였으며 조선에 한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편

답을 하게 해주시였다.

그때 어머니와 동행하였던 자식들이 그이의 은정에 목이 메어 어쩔바를 몰라하자 그이께서는 간고한 혁명활동시기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잊을수 없었다고 하시며 어머니와 후손들모두를 품에 안아주시였다.

이외에도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끝이 없다.

하기에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일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를 생각할 때마다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정녕 **김일성**주석님은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모두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그이의 위대한 모습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있으며 우리들이 혁명의 길에서 영원히 전진해나갈수 있도록 추동해주는 고무의 기치로 되고 있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위원장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위대한 조선은 반드시 부강번영하게 될 것이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현하죽의 손자, 김순옥의 아들 **현종웅** 단동에서

가는것처럼 생각하고 부인과 자식들도 데리고와야 하겠다고 이르시였고 또 언젠가는 조국체류중에 있는 저에게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저택에서 친 떡까지 손수 제앞에 가져다놓으시며 정답아, 사랑답아 생일축배잔도 짚어주시였습니다.

기억도 생생한 주체89(2000)년 3월 어느날 조국을 방문한 저를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외반동들이 저에 대한 갖은 험담을 늘어놓으며 총련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자신께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동무를 믿는다고, 책임부의장동무는 자신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품을 들여 키운 총련의 지도핵심이라고, 책임부의장동무는 그 누가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말고 답을 가

지고 총련사업을 짙짙 내밀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이렇듯 한없이 고결하고 참다운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정이 있었기에 우리 총련일군들은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기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애국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을수 있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은 숭고한 사랑과 인덕으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뜻피워주고 지켜주신 우리 운명의 영원한 수호자이십니다.

(다음호에 계속)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2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의 동포들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중앙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으며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도 행사가 진행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축모임이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무궁번영하라 위대한 인민의 나라여》의 기사가 랑독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어 최수봉 제1부의장이 쓴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과 권현동포가 쓴 시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발표되였다.

모임에서 제1부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주권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의 빛나는 원형을 창조하시고 해방된 조국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고 긍지높이 찬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공화국이 국제무대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수 없는 작고도 큰 나라, 자주적대강한 나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조국의 룡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연변지구협회 일군들과 연길시지부도 연길시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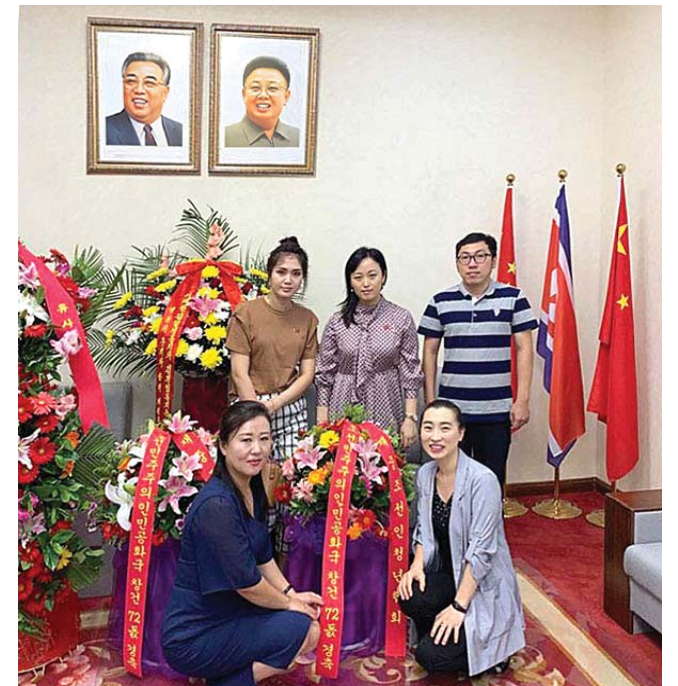
이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중남지구협회에서도 9월 7일 베이징시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채택모임이 진행되였다.

경축모임에는 백경현회장을 비롯한 중남지구협회 일군들과 베이징시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 * *



동포가 추억하는 고장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한시도 고향과 혈육들을 잊은적 없을 동포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강원도 통천군으로 이어졌다.

통천군은 기묘함과 신비로움을 자랑하는 관동 8경의 하나인 총석정과 아름다운 모습을 안고있는 시중호를 비롯하여 명승지가 많은 고장이다.

더우기 이 고장은 미국에서 살고있는 김필주 로인과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그것은 로인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를 묻은 고장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군에는 통천군기능공학교에서 교장사업을 하고있는 조카 주혜연이 살고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삼촌은 몇년전부터 자주 조국을 방문하고있는데 통천에도 매번 들리었다고 한다.

해당화 곱게 핀 시중호의 백사장을 발목이 시도록 걸으며 물장구로 시간가는줄 모르던 송아

지적동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동포, 솔밭에 앉아 통천의 특산음식을 들며 외할머니의 손맛도 다시 감회깊이 느껴보았을 그.

하지만 동포가 이 고장을 자주 찾는다는 옛 시절의 애뜻한 추억이나 불러오고 명승지의 절경에 반하여서만이 아니었다.

처음 통천땅을 찾았을 때 동포는 군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시원하게 뻗어간 도로랑옆에 아담하게 일떠선 살림집들과 문화회관, 상점 등의 편의봉사시설들도 나무랄데 없었지만 곳곳마다의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는 모습은 동포의 감동을 자아냈다. 아무리 보아야 미국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해주던 그 옛날 락후한 바다가마을의 모습은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돌아볼수록 경탄은 커만 갔다. 동시에 자기 사는 고향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러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조카를 만나본 후 더 확고해졌다. 사회와 집단의 믿음속에 통천군웁공장의 작업반장, 군기능공학교의 교장으로 성장해온 조카의 이야기는 그에게 있어서 고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계기로 되었다.

그는 조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고향을 찾고 이렇게 조카도 만나보니 내 소원이 풀렸소. 이번 방문길에 래일을 위해 누구나 몸바쳐가는 고국인민들에게서 받은 감동도 크오. 나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고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할 결심이요.》

동포는 그후 고국을 위한 특색있는 기여를 하였으며 나라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었다.

오늘 통천은 낱알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해가고있다.

최근년간 군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많은 살림집들과 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개건하였다. 바다가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공 및 랭동능력이 큰 강원도수산사업소가 일떠선데 이어 통천수산사업소의 개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었다. 그리고 자기 고장의 명승지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었다.

그런가 하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초식품공장, 그물우리양어장, 남새온실 등이 일떠서 군주민들이 그 덕을 보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사진기에 담고 통천군을 떠나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지금도 이국땅에서 조국의 하늘가를 그려볼 김필주동포가 새롭게 일신되어가는 이 고장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글 분사기자 강경수
사진 분사기자 임정국



강원도수산사업소



김필주동포의 조카 주혜연(앞줄 가운데)



총석정



통천종합상점



할머니들의 기쁨

조국에서는 희열과 랑만에 넘쳐 보람찬 삶을 누리는 년로자들의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들가운데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2동의 주민들로부터 일명 《딱친구할머니들》이라고 불리우는 원정옥, 오정숙, 정명실, 리부숙할머니들도 있다.

할머니들이 주민들로부터 이런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마음과 정이 하나로 흐르기때문이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를 위해, 후대들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는것은 하나의 일과로, 범상한 일로 되고있다.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리경숙은 《인생의 로년기에 있는 이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나무람할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스스로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

다.》라고 말하였다.

대동강구역식료품종합상점에서 봉사일군을 하던 전쟁로병인 원정옥할머니가 년로보장을 받았을 때였다.

당시 그는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전쟁로병, 공로자라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해마다 무료휴양권과 료양권도 주고 자식들을 무료로 대학공부시켜 준것을 비롯하여 자신과 가정

에 돌려진 국가의 혜택에 대해 생각할수록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자신의 지난날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졌다. 그리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밤 그는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오정숙, 정명실, 리부숙할머니들을 찾아가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았다. 다른 할머니들의 마음도 그와 다를바 없었다.

이렇게 되어 결심은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은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알뜰히 꾸리는 일이었다.

많은 걸음을 하면서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구해다 살림집주변과 공원에 심었고 때로는 유희자재들을 수집하여 아이들의 놀이터에 설치할 유희기재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작업의 실참에는 흥취나는 춤과 민요로 주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할머니들이 기울인 노력이 있어 몇년후 마을주변에 심은 과일나무들에 첫열매가 달리었다. 그때 살구를 비롯한 과일들을 손에 쥐고 좋아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모습에서 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 이들이었다.

언제인가 원정옥할머니에게 그의 딸 강현숙은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왜 스스로 일을 찾아하는가, 이제는 년세도 있는데 편안히 쉬면서 건강을 돌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때 할머니는 자기가 무엇으로 나라에 보탬을 주겠는가, 비록 몸은 늙었어도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힘자라는껏 하

고싶다고 하였다.

할머니들은 자기들이 받는 년로보조금도 전부 살림집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지원사업과 이웃들을 위한 일에 바쳤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일내일이 따로 없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싶어하는것이 이들의 마음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할머니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지원물자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기도 하였다.

원정옥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웃들을 위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할 때면 우리는 즐겁고 더 젊어지는것만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원정옥, 오정숙, 정명실, 리부숙할머니들은 오늘도 나라를 위한 일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고있다.

글 분사기자 김지성
사진 분사기자 김 평
주체109(2020)년 6월 촬영



상 식

선조들이 리용해온 화장용식물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갖가지 식물들을 화장에 리용하여왔다.

봄에는 복숭아꽃과 잎을, 여름에는 느릅나무잎을, 가을에는 당귀뿌리 등을 삶아 우려낸 물을 화장수로 썼다.

흔히 선조들은 살결이 고운 녀인들을 가리켜 두부집딸들이라고 하였는데 그만큼 녀인들은 순두부국물로 몸을 씻어 살결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가꾸었다.

궁녀들은 팔이나 록두의 가루로 얼굴을 씻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녀인들은 여러가지 식물로 분, 연지, 떡, 향료, 머리기름 등도 만들어썼다.

분은 분꽃씨가루나 쌀을 비롯한 곡식가루로 만들었고 연지는 잇꽃(홍화)으로 만들었다.

눈섭을 그리는 떡은 나무결이 단단한 굴참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재로 만들었다.

향료는 향기가 짙은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를 그늘에 말리워 가루를 내어 만들거나 향나무를 잘게 토막내어 만들었다.

그리고 동백나무열매로 머리기름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일본의 옛 문헌에는 일본사람들이 백제사람들로부터 화장품제조기술과 화장기술을 배웠다는 내용이 있다.

* * *

유모아

간단한 대답

어린이 두명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왜 번개가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야 우리 소리가 들리니?》

2: 《그것도 모르니? 사람의 눈이 귀보다 앞에 있기때문이야.》

* * *

높은 의술로 전해가는 애국의 마음

조국에는 해외동포상공인들의 애국지성을 전해가는 건물들이 많다.

그런 공장파 건물, 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해외동포들의 진정을 읽곤 한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1동에 있는 최경태내분비연구소를 보아도 그러하다.

최경태동포와 그의 부인의 애국지성에 의하여 연구소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는 주체89(2000)년 5월 근 34 000㎡

의 부지에 건설되었다.

연건축면적이 7 800㎡인 연구소에는 10여개의 치료실들과 백수십대의 환자용침대, 현대적인 진단 및 실험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연구소는 지난 기간 조국의 내분비 및 물질대사병학연구중심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하여 수많은 최중증, 중증환자들을 살려내어 조국인민들의 기억속에 의술높은 치료예방기지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연구소의 당뇨병연구실, 고지혈증연구실을 비롯한 많은 연구실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특히 갑상선연구실의 연구성과가 주목되고있다.

갑상선연구실에서는 갑상선증으로 오는 실명환자들에게 광명을 찾아주고있다. 이

실에서 갑상선증학을 개척한것은 10년전이다.

당시 이 학문은 미개척분야였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병을 치료하였다는 증례가 없었다.

장순화연구사는 주체99(2010)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앞을 보지 못했다는 환자의 호소를 무심히 대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생의 빛을 안겨주기 위한 치료에 몸을 담그었다. 그 길은 험치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환자의 병상태에 맞게 스테로이드 충격요법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환자가 끝내 다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갑상선증치료의 문을 열어제낀 연구실에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오는 갑상선증환자들에게 대한 치료를 본격화하였다.

주영미실장과 리련, 최영석



종합검사실



연구사들은 증환자들을 맡아 남녀별, 체질별, 질병별, 나이별 특성에 따르는 약물반응원리를 밝히였으며 손전화기나 관형컴퓨터를 가지고 자체로 갑상선증진단을 할수 있는 눈검사체계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헌신적인 이들에 의해 지난 6월 자강도 동신군 농장원 방성남도 광명을 되찾고 퇴원하였다. 그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각막이 손상되고 빛감각이 전혀 없는데다가 당뇨병까지 있어 이제는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갑상선연구실의 주영미실장과 장순화, 리련연구사들은 과학적인 치료방법과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그가 다시 신문도

읽고 텔레비죤도 볼수 있게 하였다.

방성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시기 알게모르게 보건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에 돈 한푼 내지 않고 잃을번 한 눈까지 되찾고보니 이것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에서만 있을수 있는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런 목소리는 당뇨병연구실, 외과연구실들에서도 울려나왔다.

당뇨병에 고혈압, 신경장애, 백내장까지 겹쳤다가 소생한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에 사는 차승진로인은 자기는 일본에서 살

다가 온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범한 로인의 병상태를 놓고 마음쓰는 의사들의 모습에서 친혈육의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하기에 신봉철소장은 《퇴원한 환자들이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최경태동포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가 살아서 조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이곳에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의 애국의 마음도 합쳐 환자치료에 더 전념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철병

갑상선증환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환자치료에 정성을 기울인다.



조선속담 (확신성)

-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 ① 상대편이 어떤 일을 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장담하여 이르는 말이다.
- ② 자기가 주장하는것이 틀림없음을 장담할 때 쓰이는 말이다.
- 죽을 병에도 살 약이 있다

죽게 된 병에도 그것을 고치는 약이 있는 법이라는 뜻으로서 앓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신심을 줄 때 이르는 말이다.
- 어느 집 방아간에 거 한줌 없겠는가

《설마 그만한것이야 없겠는가.》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 열에 아홉
거의 레외없이 그렇게 될것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 * *

찬가는 계속된다

《...만약 사랑을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 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 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거나 다르게 뭐예요?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런 꽃과 열매를 따기 전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가꿔야 한다고 봐요. ...》 이것은 장편소설 《청춘송가》에 나오는 대사이다.

진실하고 참다운 사랑은 그것을 쟁취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가꾸는데 있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제철소현장기사인 주인공 진호와 현옥, 정아의 형상을 통하여 풀어나가는 소설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청년들은 이 소설에 나오는 대사와 명문장들을 거의 다 기억 하신다싶이하고있으며 소설의 주인공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견인력있는 이 소설의 창작가는 4.15문학창작단 작가 남대현이다.

우리는 김일성상계관인인 작가 남대현과 마주앉는 기회를 가

지였다.

큰 키에 든든한 체격, 얼핏 보기엔 경기장에 나설 체육인같은 감을 주는 남대현작가는 유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장편소설 <청춘송가>를 창작할 때만 해도 내 나이가 40대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도 선생님이 창작한 문학 작품들을 즐겨보군 합니다. 지금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이 창작한 소설의 제목이 대체로 <가>로 끝나고있다고 말하군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자신이 체험한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온 세상에 노래하고싶어 그렇게 달았습니다.》라며 남대현작가는 조용히 추억의 문을 열어제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짓기를 무척 좋아했다. 작가가 되려던 그의 꿈은 주체52(1963)년 그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면서 실현되게 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배움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는 무상으로 치료받고 교육을 받으며 서로 돕고 이끄는 조국의 현실을 폐부로 체험하였다.

그의 일기장의 갈피마다에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들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찬탄과 고마움이 한자한자 담겨졌다.

일기장의 부피가 두터워질수록 그는 벽찬 현실에 몸을 담고싶은 충동을 금



남대현

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자원진출하였으며 그곳에서 로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보람찬 로동의 나날 그는 나라를 위해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는 로동자들속에서 보석과도 같은 귀중한 소재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생활을 일일이 료해하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비록 부모들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육친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싸고 있음을 그는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날마다 축적되는 감정과 체험의 용적은 비할바없이 커져 《청춘송가》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소설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저기서 청춘남녀들이 참다운 사랑관을 보여준 소설,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준 소설이라고 작가에게 축하편지를 보냈으며 신문, 잡지들은 소설에 대한 평을 실었다.

한편 평양시안의 대학생들 수

백명이 참가한 독자모임이 열렸으며 소설은 감화력으로 하여 그후 동명의 텔레비죤연속극으로도 각색되었다.

일약 그의 이름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세대주는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식들의 생일도 다 잊고 진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작품을 발표한 날은 기억해도 두 딸과 두 아들의 생일은 잘 모른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청춘송가>를 사랑한답니다. 거기에는 세대주의 온녋이 깃들어있습니다.》라고 그의 안해 리인숙은 이야기했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그후에도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태양찬가》,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조국찬가》, 비전향장기수의 생활을 반영한 《통일련가》 등 여러편의 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들을 창작하였다.

그가 새 작품을 발표할 때면 일본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두 녀동생도 매우 기뻐하였다.

4년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고향의 그의 어머니는 경치좋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덩실한 집에서 아들이 부림없이 살고있는 데다가 그의 두 아들과 두 딸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졸업하고 말은 직무에서 일하고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네가 어릴 때 그렇게도 희망하던 소원을 조국에 와서 성취하였으니 나도 기쁘기 그지 없다. 네 희망을 꽃피워준 조국을 마음껏 글에 담아 노래하거라.》

남대현작가는 우리에게 《조국에 대한 나의 노래는 끝이 없을것입니다. 이 한몸 진할 때까지 나의 노래는 계속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슬기

제도가 낳은 비극

로인들을 보호하는것은 해당 국가와 사회의 법적, 도덕적의 무이며 해당 나라의 문명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일본에서는 사회적약자들이라 할수 있는 로인들이 보호는커녕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일본은 이미 인구의 26%가 65살이상의 로인들로서 유엔이 설정한 《초고령사회기준》을 넘어섰으나 그들의 년로보조금을 늘일대신 대폭 삭감하거나 그것마저도 투기자금으로 마구 람용하고있다.

결과 일본에서는 로인빈곤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수천만명의 로인들이 년로보조금이 너무 낮아 양로원이나 고향자봉사시설은커녕 병원에서 진단조차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일본에서는 개인리기주의와 극도의 인간중오사상이 로인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로 증대되어 살인행위도 서슴없이 감행되고있다. 최근시기에만도 아이찌현에 살고있는 23살 난 청년이 자기 할머니와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범죄자는 식칼로 할머니의 목을 마구 찢러 살해한 다음 아버지의 잔등을 찢러 숨지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야기현에 살고있는 녀성은 늙은 남편의 시중을 듣기 힘들다고 하여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후쿠이현의 한 녀성도 역시 남편과 시부모를 부양하기 싫다고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사람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하는것은 후쿠시마현의 한 청년이 어머니가 사망한것을 알고있었지만 그대로 몇달동안 내버려둔채 제불장을 보며 마음대로 다

닌 사실이다.

늙었다고 하여 천대와 멸시를 받다 못해 가족성원들에게서까지 억울한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고 죽으면 내버려져야 하는 이것이 부패하고 반인륜적인 일본사회의 현실이다.

지금 일본의 로인들속에서는 《나이먹어 퇴직후의 생활은 사형집행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류행어처럼 나돌고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는 로인 천시가 하나의 사회적풍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일본녀성들속에서 성행하는 《사후리혼》이라는 괴이한 풍조를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사후리혼》이란 남편이 사망하면 리혼한다는 뜻으로서 그렇게 되면 안해는 남편의 유산은 고스란히 상속받으면서도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에서는 벗어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법률상 《사후리혼》수속이 매우 간단하며 아무런 제약조건도 없다는데 있다.

결국 일본녀성들에게 있어서 《사후리혼》은 일종의 《혜택》으로, 치부의 기회로 되어 많은 녀성들이 《시부모부양은 절대반대이다. 시부모에 대한 시중에서 해방되어 나만을 위한 일생을 살고싶다.》고 부르짖으며 앞을 다투어 이 수속을 하고 있다. 물론 그 풍조의 희생물은 다름아닌 로인들이다.

지금 《사후리혼》을 비롯하여 사회를 배회하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생활방식, 풍조로 하여 자식들에게서 쫓겨난 로인들은 값늑은 거처치조차 찾지 못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에서

있다.

그러한 로인들이 제발로 가는 곳이 있다. 그것이 감옥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양로원 아닌 《양로원》으로 되고있다. 감옥밥이라도 매일 먹을수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한지보다는 한결 낫다는 생각이 로인들을 범죄의 길로 떠밀고있다.

그런데로부터 일본의 각지에서는 로인들에 의하여 폭력, 살해사건들이 련발하고있으며 그 수는 청소년범죄건수를 훨씬 륭가하고있다.

한 로인범죄자는 경찰이 범죄현장에 도착하자 도망치려고 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제발 잡아달라고, 죽을때까지라도 감옥밥을 먹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연구사는 《일본의 사회환경은 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있다. 로인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것으로 하여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 즉시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본이 그토록 제창하는 《만민평등》, 《인권존중》, 《료리도덕》은 사회현실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광고에 불과한것임을 알수 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료리와 도덕마저 상실해버린 일본이라는 가혹한 풍토에서 로인들의 비참한 처지와 운명은 절대로 달리될수 없다.



주체108(2019)년 촬영

민족의 향기

단군제례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10월 3일은 개천절로서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건국시조인 단군이 태어난 날입니다. 단군은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대사회에로의 길을 개척한 우리 민족의 원시조입니다.

주체82(1993)년에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룡에서 발굴된 유골이 단군의 유골임을 고증함으로써 수수천년 신화적인 존재로 전해지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확증되었습니다.

단군릉에서는 해마다 개천절을 맞으며 단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군제례란 단군이 출생한 날이자 나라를 세운 날인 10월 3일에 단군릉이나 그와 관련된 사당들에서 제를 올리는 의식들

을 말합니다. 사실 단군제례는 첫 문명국가를 세우고 민족형성에 쌓은 단군의 공적을 찬양하여 우리 선조들이 5 000년전부터 진행하여온 단군숭배의식입니다. 여러 력사기록자료들을 보면 이 단군제례가 그대로 이어져 고대국가들인 부여, 진국과 그 후 중세국가들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제천행사들이 모두 단군숭배와 결합하여 진행되었으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해마다 평양의 승평전과 구월산의 삼성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단군사당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있는 문헌자료 가운데서 단군릉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한것은 16세기 초엽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평안도 강동현 고적조에는 현의 서쪽 3리되는 곳에 둘레가 410자(1자=10치=0.303m)나 되는 큰 무덤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것을 단군묘라고 전하여오고있다.》는 글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조선민족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악독한 식민지정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단군말살책동을 끈질기게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에도 단군을 신으로 숭배한 대종교(당시 단군교)가 1909년 1월 15일(음력)에 창시되었으며 단군릉을 지키기 위한 단군릉수호회와 단군릉수축기성회가 조직되어 1936년에는 단군릉을 보수하고 단군제를 지내었습니다. 구월산의 삼성사와 같은 각지의 단군사당들에서도 대종교 교주를 비롯한 수많은 신도들이 단군제례를 진행하여왔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단군릉을 시대성과 전통적민족풍습의 관

례를 잘 살려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우고 해마다 단군릉에서 개천절기념행사를 열고 단군제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단군제례 때 제상에 올려놓는 제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가 합니다.

단군제례는 우리 선조들이 원시조인 단군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을 만들고 제상을 차리며 향불을 피우던 관습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전시기에는 벼, 보리, 조, 기장, 콩 같은 곡식과 삼베, 무명베, 명주를 각각 3자씩, 정결한 물, 배, 흰쌀밥, 미역국, 무궁화 혹은 여러가지 생화 등을 기본으로 제물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러던것을 지금은 흰쌀밥, 미역국, 오희, 찰떡, 절편, 백설기, 빵, 강정, 순대, 룡두지짐, 돼지갈비, 잉어, 사과, 배, 대추, 밤, 잣, 감, 고사리, 꽃, 단군술 등을 제상에 올려놓습니다.

동포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단군제례를 통하여 조선민족이야말로 수천년전부터 이 땅에서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하여 살아온 단일민족이며 그 력사와 문화가 유구하다는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이 지녔던 고상한 도덕과 미풍양속을 대대손손 이어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동방례의지국에서 사는 긍지를 안고 민족성을 더욱 빛내여가고있습니다.

그럼 언제인가 개천절에 단군릉을 찾은 한 해외동포가 피력한 소감으로 이 글을 마칠가 합니다.

《단군릉의 웅자가 산처럼 느껴졌다. 백악처럼 빛나는 단군릉은 지나온 반만년의 력사와 다가올 몇백만년의 민족사에 드리는 20세기의 기념비였다. 그것은 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가 드린 지성의 탑이었다.

영광을 안았도다. 단군조선아!》

본사기자 연 옥

왕건왕릉에서

머리말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에는 수천년력사의 이끼속에 파묻힌 유적유물들이 헤아릴수없이 많다.

이러한 유적유물들가운데는 이미 소개된것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 이야기되지 못한것들도 많으며 락엽속에 묻혀 아직까지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있는것들도 있다.

고려의 력사는 자랑찬 우리 민족사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고려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로서 세계만방에 명성을 떨쳤다는데서는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어린시절부터 어른들에게서 밤하늘의 별이 다 기울도록 민족의 자랑스런 옛이야기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라난 사람이라면 고려의 유적유물을 대하고 거기에 새겨져있는 민족의 슬기와 의로운 모습들을 찾아볼수록 그것을 받드시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수 없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 * *

따사로운 해빛이 비쳐드는 어느 봄날 나는 왕건왕릉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개성남대문 주변의 록지에는 철쭉꽃들이 수없이 피었는데 서쪽으로 뻗은 도로의 량옆 가로수들에선 뽕죽뽕죽 움이 트고있었다.

개성역을 지나 오정문고개를 향한 도로에 들어서니 약간의 울리막길이여서 자전거의 속도가 더디여졌다.

나는 고개에 올라섰다. 길우로는 고속도로의 다리가 높이 놓여있는데 바라보니 까마득하기만 하였다. 여기서부터 길은 약간의 내리경사를 이루어 자전거가 저절로 굴러갔다. 자전거가 무성한 수삼나무림을 지나 오른쪽으로 굽어들자 눈앞에는 넓은 벌이 펼쳐졌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포전마다에서는 농장원들이 남새모를 떠옮기고있었는데 그뒤를 따라 펼쳐지는 남새밭의 전경은 들관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넓은 도로 오른쪽 먼밭치로는 송악산줄기가 뻗어내려 지내산을 이루었고 왼쪽으로는 서북 10km지점에 높이 솟은 봉명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산줄기가 남쪽으로 연연히 굽이쳐 만수산 을 이루고있었다.

만수산기슭에 그림처럼 펼쳐진 마을이 해선리의 소재지이다. 이 마을을 향해 열린 길을 따라 들어가느라니 산기슭의 넓은 부지에 왕건왕릉의 룬곽이 나타났다. 왕릉관리소의 정문을 지나니 북쪽을 향하여 룬구역이 펼쳐졌다.

왕건왕릉은 주체83(1994)년 1월 31일에 개건되었다.

릉문앞 동쪽엔 화강석으로 된 웅장한 개건비가 세워져있었다.

무게있게 세워진 개건비의 앞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자로 써주신 《고려대조 왕건왕릉개건비》라는 글밭이 활달한 필치 그대로 새겨져있고 그 뒤면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도업적을 칭송한 헌시가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주체85(1996)년 3월 31일 왕건왕릉을 찾아주시고 룬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왕건왕릉은 통일국가였던 고려를 상징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나는 왕씨가계의 32대손인 왕진과 함께 웅장한 개건비구역을 지나 제당으로 들어갔다. 왕진은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아직도 정력이 넘쳐있었다.

100m가 좀 넘는 제당안에 들어서니 어버이수령님께 올린 《개성왕씨족보》의 첫장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복사하여 중심에 안치한 왕건의 화상이 눈앞에 안겨왔다.

왕건왕릉은 고려를 상징한다. 하다면 왕건은 자기가 세운 나라이름을 왜 고려라고 하였는가? ...

나의 이러한 의문을 풀어 주려는듯 왕진은 이렇게 말하였다.

《왕건왕은 고려가 고구려의 지향과 의지뿐만아니라 국호도 계승하였다는 의미에서 나라의 이름을 정한것 같습니다. 사실 고구려나 고려는 같은 이름이니까요.》

《그러면 고구려나 고려라는 국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구려임금의 성인 교자에 대하여 일연의 저서 <삼국유사>에는 <본래의 성은 해씨였는데 천제의 아들로서 해빛을 받고 낳았다고 하여 그자신이 높을 교자로 성을 삼았다.> 이렇게 써여있습니다.》

나의 머리에도 그 글이 떠올랐다. 《삼국유사》왕력에서 동명왕은 성이 고씨라고 하면서도 2대왕부터 4대왕까지는 성이 모두 해씨로 기록되어있었

조국의 각 토 특산물들 (21)

강원도의 특산 — 원산조개밥

원산조개밥은 조선동해에서 나는 대합조개의 살을 넣고 지은 밥을 다시 대합조개의 조가비에 담아 여러가지 산나물이나 남새잎으로 싸서 찌낸 음식이다.

대합조개살에는 단백질, 기름질, 비타민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많을뿐아니라 그 맛과 향기가 좋은것으로 하여 일찍부터 우리 인민들은



이것을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또한 조가비도 두텁고 단단하며 윤기가 도는것으로 하여 밥주걱, 치레거리 등 여러가지 용도에 리용하였다.

옛 력사기록들에는 대합조개의 여러가지 이름과 생태학적특징 등이 서술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대합조개를 다양하게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원산조개밥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대합조개살을 쓰는것과 함께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드는 것으로 하여 더욱 이름났다.

원산조개밥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말린 빨간고추를 매운 냄새가 날 때까지 볶다가 건진다. 다음으로 도둑하게 썰어놓은 대합조개살(200g), 불균 빨간고추, 풋고추, 다진 파와 마늘 그리고 생강을 넣고 여기에 료리술, 소금, 후추가루를 치고 불균 쌀(80g)과 함께 참기름을 넣어 볶는다. 맛이 다 들면 불을 끈다. 맛들인 대합조개밥을 대합조개의 조가비에 넣고 조개국물을 조금 붓는다. 조가비 뚜껑을 덮은 다음 끓임, 깨알 등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찐 다음 다시 40분정도 찌면 음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산조개밥은 첫째로 매운맛이 세고 독특한 양념냄새가 나며 둘째로 고소하고 비린 맛이 없으며 셋째로 밥이 고슬고슬하여 쌀알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며 넷째로 기름기가 도는 것이 특징이다.

원산조개밥은 어떤 잎으로 싸서 찌내는가에 따라 밥에서 풍기는 향기가 다르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구미에 따라 요구하여 맛볼수 있다.

원산조개밥은 매 음식감들의 색깔과 냄새, 고소하고 매운맛, 조개살을 씹는 독특한 맛과 조가비의 눈맛까지 한데 어울려 사람들의 구미와 식욕을 한껏 돋구어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철학

다. 결국 우리 나라 고대어에서 해(태양)와 고(높다)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를 담고있었던것이다.

나는 왕진에게 물었다. 《어느 책을 보니 고구려의 고유어로 <거루>, <구려>는 같은 말인데 그것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등으로 해석된다고 했더군요.》

《웁습니다. 나도 그 책을 보았습니다. 고구려라는 의미는 <태양이 솟는 성스러운 나라>

라는것으로서 결국 고구려와 고려라는 국호의 의미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태양숭배사상과 련관되어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왕진이 다시 말을 이었다.

《태양숭배는 단군조선에서부터 계승되어온것입니다.》

나도 그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국호의 의미는 <해가 솟는 동

방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고조선의 태양숭배사상이 그 정통계승국인 고구려를 거쳐 고려에로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문득 나에게서는 며칠전 력사화를 전문한 송남선생과 함께 천림산기슭의 고일령을 탐승하던 생각이 되살아났다.

(다음호에 계속)

김현우

평양의 일부 지명들 (1)

하나의 피줄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사는 평양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평양은 민족사의 시원이 열린 조선민족의 원고향인 동시에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봉건왕조를 거쳐 수도, 부수도, 서북방의 중심지로서 민족의 반만년력사가 응축되어있는 유서깊은 력사의 도시이다.

평양의 고유성은 지명이 전하는 전설들과 실화들에도 력력히 깃들어있다.

평양시 강동군에 있는 대박산은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박달임금)이 자라고 묻힌 고장에 있는 큰 산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다. 그리고 대박산과 잇닿아있는 금산은 옛날부터 《고미달/구미달》이었던것이 한자로 옮겨쓰면서 《금산》으로 된것이다.

금산의 남서쪽에 아달산이 있는데 단군이 도읍을 정한 곳이라고 한다.

단군을 하늘이 낸 인물로 여겨오던 우리 조상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달산의 산신이 되어 나라의 정사와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전하고있다.

이곳에 있는 홍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단군이 열살되던 해 이른봄이었다.

집뜰안에서 활쏘기련습을 하고있는 단군을 본 아버지는 우리 씨족을 이끌어갈 네가 집뜰안에서 무술을 닦아서야 되겠는가고 엄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아버지는 두필의 말에 짐바리를 싣고 아들과 두 군사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들을 지나고 산을 넘어 나직한 산릉선에 이른 아버지는 이런 곳에서 무술을 닦아야 담도 커지고 의지도 굳세

여지니 1년이건 10년이건 산속에서 무술을 닦되 자기의 마음에 들기 전엔 집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오금을 박았다.

단군은 이튿날부터 온종일 훈련에 열중하였다.

산관을 메주밟듯 하는 그의 말발굽에 풀 한포기 돌아날새 없었다. 그가 어찌나 훈련을 맹렬히 하는지 무술터에서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붉은 흙먼지가 산불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산을 홍산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강동군에는 지난날 단군릉이 있었다는 마을인 단군동, 단군을 제사지내던 곳인 단군전, 홍산에서 온종일 무술을 닦던 단군이 늘 목욕을 하였다는 립경대와 립경소, 단군이 목욕할 때 그의 기린마가 망을 보았다는 마산, 단군이 기린마를 타고 하늘높이 날아다니였다는 고비산, 단군이 무술을 닦을 때 즐겨마셨다는 아달산샘물 등 단군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다.

평양시 력포구역 통산리에도 고구려의 건국시조였던 동명왕의 무덤인 동명왕릉이 있으며 그와 관련한 지명들이 전해지고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졸본성(중국 료녕성 환인)부근에 있었는데 427년 고구려가 평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곳에 옮겨왔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다른 고장으로 이사갈 때 다른것은 못 가져가도 조상의 유골만은 가지고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곳의 통산이라는 지명에서 통은 왕을 비유하여 나타낸것이다. 즉 왕릉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왕릉동이라고 불리

우는 마을도 있는데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에는 또한 왕촌, 왕릉저수지, 왕재등, 왕촌별 등 《왕》자를 단 지명들이 있다. 그리고 동명왕릉을 일명 진주묘라고 부른데로부터 령의 곁에 있는 못을 진주못, 진주지라고도 불렀다.

평양시 중심부에 위치하고있는 중구역 오탄동은 까마귀여울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른 이름이다.

여기에는 지난 임진조국전쟁때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1592년 4월 불의에 우리 나라를 침공한 왜적들은 《수륙병진》으로 전령도를 단숨에 강점할 야망밑에 파죽지세로 내달려 6월 중순에는 벌써 평양성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나 배가 없어 평양성을 뻘히 바라보면서도 발목을 잡히게 된 왜적들은 여러 날째 대동강의 얄은 여울목을 찾아 헤매였다.

어느날 낮썰물때 이곳 여울이 드러나 까마귀들이 걸어다니는것을 본 왜적들은 패재를 올리면서 야밤삼경에 여울목으로 기여들었다. 승패는 명백한 듯싶었다.

그러나 《승전소식》을 기다리던 적장의 눈앞에 보이는것은 강물우에 병졸들이 죽어자빠져 동동 떠돌고 까마귀들이 모여들어 시체를 파먹으며 요란스럽게 고아대는 모습이었다.

왜적들은 대동강물에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리치를 알수 없었다. 까마귀가 걸어다닐 때는 썰물때였고 적들이 강을 건널 때는 밀물때였으니 이것을 모르는 왜적들이 살아날수가 없었던것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실장 서학순

강원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7)

- 금강의 정양사 -



반야전모서리두공

정양사는 강원도의 금강군 내금강리 내금강에 있는 절이다.

경치좋은 금강산의 제일 양지바른 곳에 지은 절이라 하여 정양사라고 이름지었다.

정양사는 내금강에서도 경치가 좋은 방광대의 산허리에 자리잡고있다.

정양사는 600년에 처음 세워지고 661년에 개건 확장된 다음 여러차례 고쳐 지은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와 후기신라,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유적유물들이 보존되어있다.

절간문(혈성루)에 들어서면 절의 중심건물인 반야전이 있고 약사전, 3층탑, 돌등, 령산전, 라한전을 비롯한 여러채의 건물들이 큰 건축군을 이루고있다.

이 절의 중심건물인 반야전은 기단우에 세운 겹

처마합각집이다.

건물전반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혀 방광대의 훌륭한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였다.

약사전은 6각평면의 특이한 건물이다. 안에는 하나의 대들보도 쓰지 않았다. 약사전안에는 여래상이 놓여있다.

약사전앞에는 정양사3층탑과 정양사6각돌등이 있다.

정양사3층탑은 9세기의 돌탑으로서 장연사3층탑, 신계사3층탑과 함께 《금강산 3대탑》의 하나로 불리운다.

정양사6각돌등은 정양사3층탑앞에 있는 고려시기의 돌등이다.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이 돌등은 구조가 짜이고 전체 균형이 잘 잡혔으며 말쑥한 느낌을 준다.

약사여래상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 9세기의 불상이다.

오랜 력사와 발전된 건축술을 가지고있는 정양사는 오늘 민족문화유산으로 소중한 보존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권률장군과 한 선비

1593년 2월 권률장군은 전라도 지방에 있던 군사들을 거느리고 패배를 거듭하면서 쫓겨가기 시작하는 왜적들을 치기 위해 한성북쪽으로 행군하였다.

권률의 군사들이 양천강변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절룩거리며 여윈 하늘소를 타고 초라한 선비가 나타났다.

앞서가던 군사들이 길에서 비켜서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하늘소를 탄 선비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그냥 태연하게 갔다.

권률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를 불러오라고 했다.

권률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은 나그네는 권률의 앞에 나타났다.

나그네는 비록 옷은 해졌으나 얼굴에 도고한 기상이 어리고 행동거지도 틀지게 보였다. 스스로 자기는 인천에 사는 선비라고 하면서 장군을 도와 왜적을 칠 생각으로 굳이 뵈고저 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다.

권률은 그 말을 중히 여겨 그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고 물었다.

선비는 장군이 대군을 거느리고 북으로 강을 건느는 것은 한성안의 왜적을 치려는 생각이 아닌가고 하면서 만일 그렇다면 행주산성을 차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귀띔해주었다.

권률은 그 말이 정녕 고마웠다.

마침 그는 진을 칠 고장을 생각하고있던 참이었던 것이다.

권률은 선비의 말을 좇아 군사를 행주산성으로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선비더러 함께 있으면서 일을 보아달라고 했다. 선비는 쾌히 승낙하였다.

권률이 행주산성을 차지하고 진을 쳤으나 한가지만은 걱정이 되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한성가까이에 외따로 나앉은 산을 차지

한데다가 성새마저 오랜 세월 비바람에 무너져 그들이 의거하여 싸울 곳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선비는 그에게 큰 돌로 성을 쌓을수는 없으니 나무를 찍어다가 목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때 봉건정부의 한 관료가 양주로 와서 권률을 불렀다. 권률은 성새가 없는 근심을 품은채 양주로 갔다.

권률장군이 양주에 간새 목책이 이루어졌다.

양주에서 돌아온 권률은 깜짝 놀랐다. 방어시설도 잘 갖추어 놓는데다가 한쪽에는 강물도 끌어 들여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음대로 물을 쓸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월 열이틀날 아침 기다리던 싸움은 드디어 시작되었다.

행주산성에 군사가 얼마 안된다는 것을 짐작한 적들은 산밑에 이르러 산을 에워싸더니 다시 세 개 대오로 나누어가지고 엿바꾸어 쉬면서 계속 공격해왔다.

고립무원한 행주산성에서 군사들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안 여려 마을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성으로 왔다.

늙은이, 어린이, 아나네들 할 것없이 모두 성우에 올라와 싸우는 군사들을 고무하며 목책가에 붙어서서는 왜적들을 노려보며 화살을 날렸고 돌을 날라다 내리굴렀다.

그때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왜적들은 목책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해묵은 마른 갈짚에 불을 달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물을 끌어다 대놓은 것이 있었던지라 성안의 군사들은 별로 힘들것도 없이 불붙는 갈단을 물로 꺼버리었다.

이것을 보고 권률은 다시한번 선비의 계책에 감탄했다.

나무로 목책을 만들 때에 벌써 있을수 있는 적들의 공격을

예견하고 이렇게 물까지 끌어다 대어놓았던 것이다.

목책을 태워버릴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들은 또 다른것을 궁리해냈다. 높은 사다리우에 꿩같은 다락집을 만들고 그속에 조총수들이 타고 목책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선비는 곧 대포를 걸어놓아야 할것 같다고 권률에게 권했다.

여기저기에 대포가 설치되자 선비는 적들의 사다리를 쏘라고 하였다. 벼락같은 소리와 함께 적들의 사다리가 몽텅 끊어졌다.

왜적조총수들은 땅에 굴러떨어져 골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갔다.

어느날 산 뒤쪽 강둑을 지키고있던 군사들이 물에 떠내려오는것을 건졌노라고 하면서 붉은 칠을 한 꿩 두개를 건져왔다. 그안에는 왜적의 나라에서 나는 진귀한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선비는 래일이나 모레라도 또 꿩이 내려오니 누구도 함부로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권률에게 아뢰었다.

다음날 또 꿩이 떠내려오자 권률은 든든한 바줄로 꿩들을 들어매고 불태워버리었다. 꿩이 타고 불길이 사그라지자 해골 두개와 긴칼 두자루가 나왔다.

갖은 방법을 다 써도 성을 함락할수 없게 되자 왜적들은 필사적으로 나왔다.

목책안의 군사들과 인민들도 최후의 결전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웠다.

권률장군은 서북쪽 목책을 지키고있던 승병장에게 잠간 뒤로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승병들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는척 하자 왜적들은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포성이 울리더니 사방에서 군사들이 달려나왔다. 붉은 갑옷자락을 휘날리며 칼을 높이 비껴든 권률

생일상앞에서 읊은 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름난 풍자시인 김삿갓(1807년-1863년)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고있는데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요란한 풍악소리가 울려나왔다.

김삿갓이 대문가에 이르러 종들에게 물으니 주인의 예순번째 생일잔치라고 했다.

그는 한 어린 종에게 《애야, 지나가던 손님이 생일을 맞는 주인에게 축수하고싶어하더라고 여쭙어라.》라고 말하였다.

주인에게 전하러 들어갔던 종이 나와서 김삿갓을 안내하였다. 김삿갓은 말석에서 주안상을 받았다. 그는 푸대접해도 나무랄바가 못되어 주는대로 한동안 마시고 먹었다.

이럴즈음에 손님들이 술이 거나해서 하는 말이 주인의 생일을 축하하여 시 한수씩 짓자고 하는 것이었다.

김삿갓도 한마디 제 심사를 표해야 하리라 생각하고 선뜻 일어섰다.

《이 좋은 날에 객도 푸짐한 대접을 받았으니 어찌 시 한수 없이 앉아있을수 있겠나이까. 소인도 시 한수 지어 바치려 하나이다.》

김삿갓은 이런 말로 손님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고는 큰상에 앉은 주인을 보며 이렇게 첫 시구를 읊었다.

《저기 앉은 저 로인 사람같이

장내를 울리는 시구를 들은 손님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며 수군거렸다.

《주인이 사람같지 않다면 귀

신이란 말인가?》

《허허, 이거 너무 지나친 시구다.》

손님들은 이렇게 서로 웅성거리면서 얼굴빛까지 검붉어졌다.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이어질 시구를 고르려는듯 동안을 두었던 김삿갓은 다음시구를 읊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아라.》

《신선이라구?!》

그제서야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풀리었다.

《명시구로다. 생일상을 받은 주인의 풍채가 과시 신선같다는 시어는 천냥이로다.》

좌중이 감탄으로 설렁거리는데 김삿갓은 이번에는 주인결에 무릎꿇고 앉아있는 일꾼아들을 가리키며 또 다음시구를 읊었다.

《그결에 일꾼아들 도적놈이 되었구나.》

《도적놈이라구.》

손님들과 그 아들들이 눈알이 뽀뽀해지자 분위기는 다시 얼어 들었다.

아들들은 불이 이는 눈으로 서로 바라보았다. 이제 어느 한 아들이 불쑥 일어나면 모두 김삿갓에게 달려들판이었다.

김삿갓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시구를 읊었다.

《하늘의 복숭아 흠쳐다 생일상에 올렸구나.》

《하늘의 복숭아라?!》

《하늘의 복숭아까지 상에 올렸다고 하니 이 시구는 일꾼아들의 효성에 대한 만냥짜리 시

구로다.》

약삭바른자의 이 찬사에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리었으나 의혹은 가셔지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몇해후 한사람이 어느 한 마을동구밖을 지나고있었다. 동네아이들이 정자나무아래에 모여앉아 서로 패를 갈라시를 주고받으며 읊고있었다.

그 사람이 보니 한패가 《저기 앉은 저 늙은이 사람같지 않아라.》 하면 마주앉은 패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아라.》 하고 한패가 《그의 일꾼자식 도적놈이 되었구나.》 하면 다른 패가 《하늘의 복숭아 흠쳐다다 생일상에 올리였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말은 분명 몇해전에 어떤 나그네가 자기네 아버지생일잔치에서 읊었던 시였다. 그 사람은 그냥 지날수 없어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 시를 누가 배워주더냐?》

《우린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아이들도 다 아는데요.》

《그럼 그 시를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알아요.》

《누구냐?》

《김삿갓이라는 사람, 어느 생일집에 가서 골려주느라고 읊은 시라고 해요.》

《김삿갓이? 골려주려구?》

그 사람은 멍청하니 하늘만 올려다보며 허구프게 웃었다.

* * *

장군의 령에 군사들은 창과 칼을 휘두르며 적들을 향해 비호처럼 달려들었다.

적들은 사방에 시체를 남긴채 뿔뿔이 달아나고말았다.

행주산성싸움은 이렇게 끝났

다. 령에서는 이것을 흔히 행주대첩이라고 한다.

이 싸움이 끝난 후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권률이 그를 보내기 아쉬워하다가 집안살림에 보태라고 보물

들과 비단을 주려고 하자 그는 이 나라 백성으로서 왜적을 치는것은 응당한 본분인데 구태여 무엇을 받았는가고 하면서 길을 떠났다.

* * *

명승-좌양산



좌양산폭포

좌양산은 황해남도 해주시와 신원군과의 경계에 있는 명승지이다.

바다가 가까이 솟아있는 좌양산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널리 알려져있다.

좌양산을 보면 최고봉인 설류

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는 박달봉, 남동쪽에는 장대산, 남쪽에는 주계봉, 남서쪽에는 독령산, 서쪽에는 책암산, 북송산 등 많은 봉우리들이 솟아있다.

그리고 좌양산의 서쪽비탈면으로는 신광천이, 남쪽비탈면에서는 광석천이, 동쪽비탈면에서는 읍천이, 북쪽비탈면에서는 재령강상류의 지류들이 흘러내린다.

이 하천들에 의하여 깎이운 골짜기

들마다에는 좌양산폭포, 북호포, 잠양포를 비롯한 폭포들이 있다.

좌양산은 봉우리들과 릉산들에 기암들이 늘어선 산악미, 골짜기들로 흐르는 맑은 물, 폭포와 여울, 울창한 수림이 서로 어

울러있어 볼수록 장관이다.

봄이면 진달래꽃과 철쭉꽃들이 활짝 피어 연분홍색의 꽃구름을 이루고 여름이면 여러 종류의 키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짙은 풀색으로 단장되는 좌양산은 가을이면 단풍나무, 참나무, 박달나무, 들메나무, 오리나무 등 넓은잎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불타고 눈내리는 겨울에는 설경을 펼쳐놓아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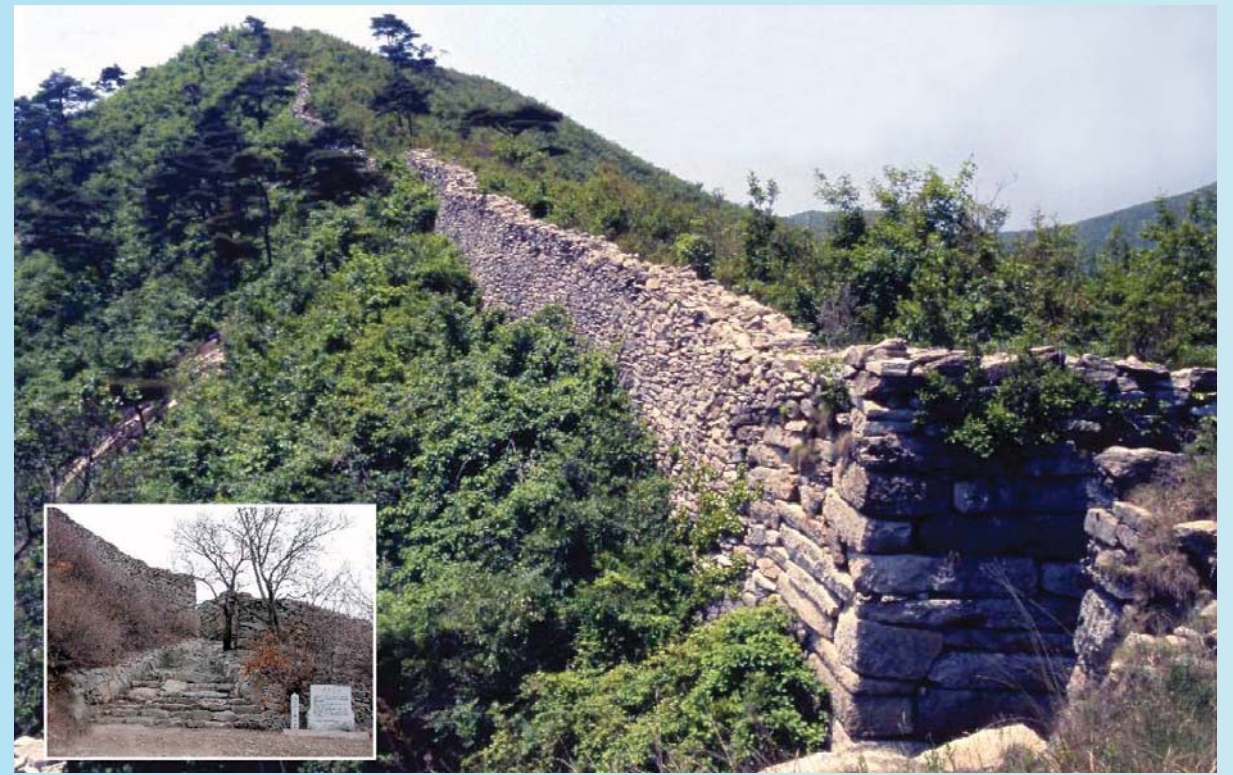
풍치아름다운 좌양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진 좌양산폭포가 있다.

폭포는 2단폭포로서 수직높이 128m, 길이 186m, 너비 12.5m이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우뢰마냥 온 골안을 진동시키는 좌양산폭포는 그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해주8경의 하나로 일러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좌양산폭포폭대기도 전망하기



좌양산성

해주다라니석당

좋은 곳이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듯 한 이 높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항구문화도시로 전변된 해주시와 물결잔잔한 해주만이 바라보이고 멀리로는 아름다운 바다풍경이 한 눈에 안겨온다.

좌양산과 그 일대에는 좌양산성, 지환정, 사미정, 해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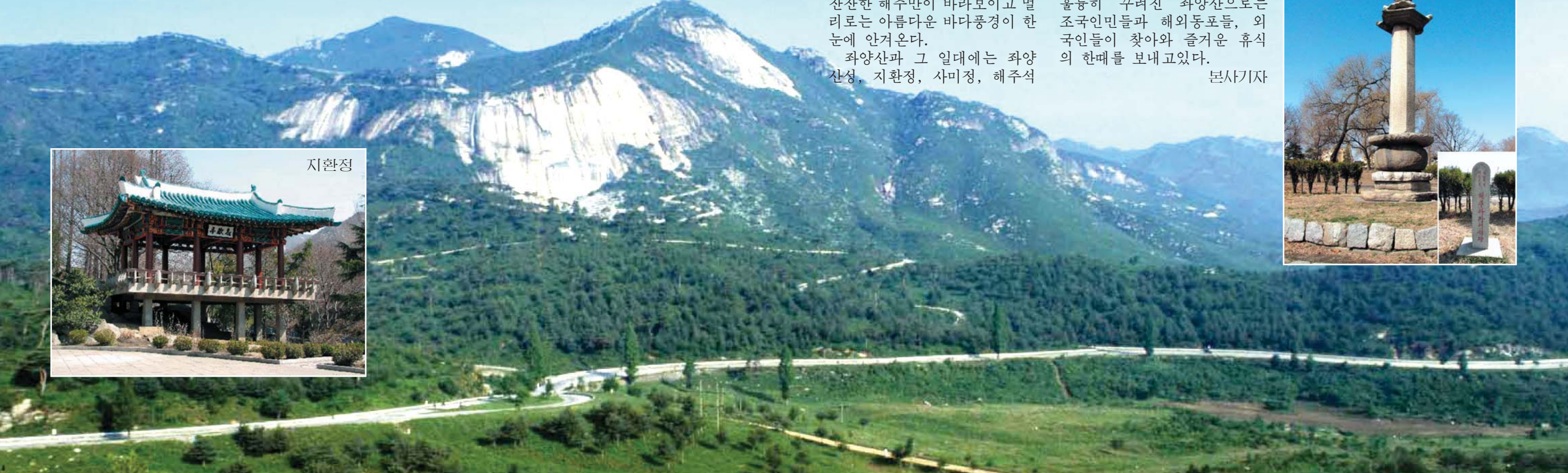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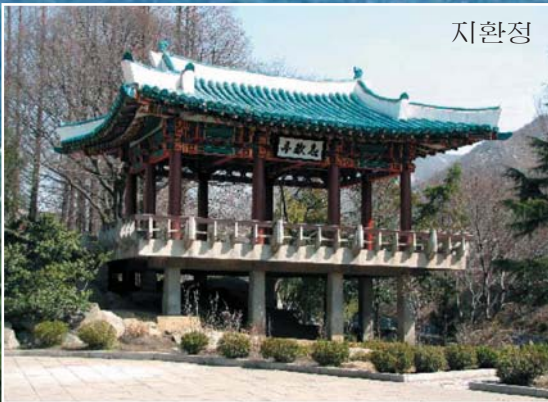
빙고, 해주5층탑과 같은 역사유적들이 있어 명승지로서의 품위를 더한층 돋구어준다.

오늘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좌양산으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지환정





리명수의 가을 본사기자 김춘혁

량강도 삼지연시 리명수기슭에 위치한 리명수폭포는 보기 드문 지하수폭포이다.

여러 갈래의 물줄기들이 쏟아져내리다가 바위턱에 부딪쳐 물안개를 일으키며 구슬같은 물방울로 흩어져내리는 리명수의 폭포도 이채롭지만 호수에 비끼는 리명수의 가을풍치는 더욱 유정하다.

리명수폭포는 경치가 특이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